

미래유물전  
평택, 물로부터 온  
2016.10.20~10.30

## CONTENTS

발간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05

전시를 기획하며 “평택, 물로부터 온” 07

<sup>택</sup>  
澤 동심<sup>同心</sup>의 리듬 13

<sup>평</sup>  
平 타원<sup>橢圓</sup>의 변주 45

반복 있다—있다 95

전시를 마치며 107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 115

여 백

## 발간사

<미래유물전>은 지방문화원이 과거의 것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역은 항상 살아 숨 쉬고 있는 역동적인 생활의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재구성!' 이것이 미래유물전이 지방문화원에게 발신하는 주파수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명명되는 개념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때문에 기획전시 <미래유물전>은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실천을 어떻게 지역으로 향하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 10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여 백

전시를 기획하며

## 평택, 물로부터 온

살아 있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 위에, 특정한 어떤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과 상황을 전제 조건처럼 안고 있는 존재 - 우리는  
지나온 시간 사이사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또 다른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이런 변곡점을 따라 흐르는 우리 이야기 안에는 물이 있다.  
물은 평택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이루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삶의 전제조건이며,  
사는 방법을 달리하게 한 원인은 이 질척임이다.

사건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이곳 평택,  
일어난 사건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어떤 마주침은 저 바닥에 깔려있던 기억을 불러낼 것이고,  
지나온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을 순간 펼쳐보이게 하고,  
암묵적 경험으로 우리라는 일체감을 순간 경험하게도 한다.  
수많은 나=우리는 평택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공통의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평택에 대한 공유된 감각을  
일상의 이야기로 다시 불러들이고자 한다.

평택웃다리문화촌은

1945년 금각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46년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로인가되었고 1993년 서탄초  
등학교 금각분교장이 되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은

2005년 평택교육청에 폐교된

금각분교장 사용승인을 받아

새롭게 단장하여

2006년 8월 '웃다리문화촌'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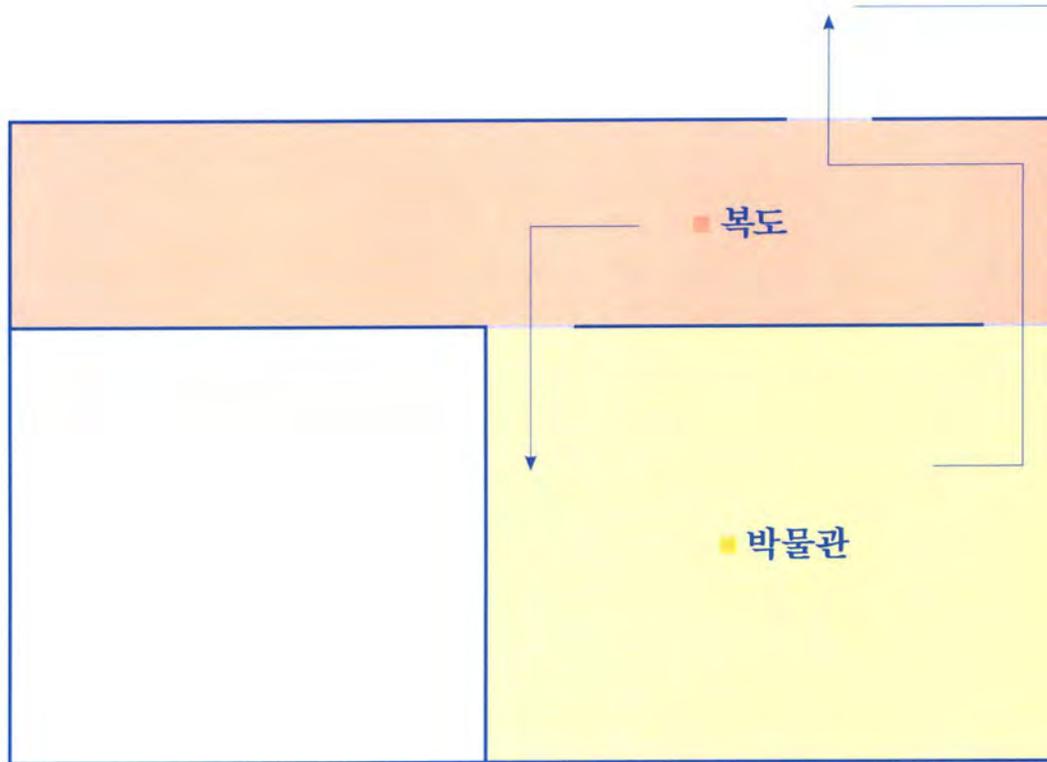


현재 문화예술인과 프로그램 강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공간입니다.

## 평평……타원 橢圓의 변주

### ■ 복도 →

- 이의근 | 76세, 현덕면 신왕리
- 인원환 | 78세, 현덕면 신왕리, 25'20", 2016
- 신만철 | 82세, 현덕면 대안2리, 12'33", 2016
- 노광풍 | 77세, 서정동, 6'48"
- 안희환 | 74세, 원평동, 8'11",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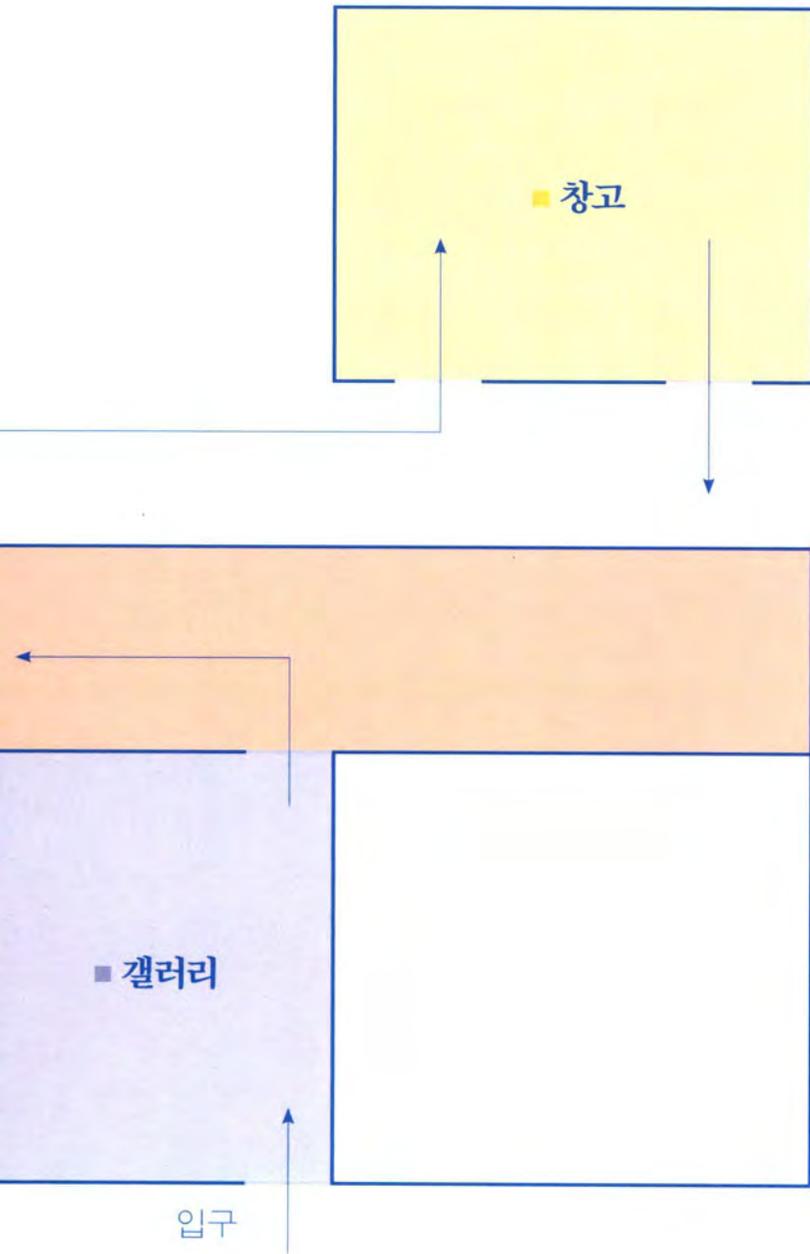
## 반복……있다-있다

### ■ 박물관 →

- 장성욱 | 지도방, Carpet, Polycarbonate Panel, UV Print, LED light, 2016

### ■ 창고 →

- 장성욱 | 노을방, Full HD, Full-time Video, HD, 5MIN Video, 2016



### 택澤……동심同心의 리듬

- 갤러리 →
- 김병직 | 물, 動, Pause, 파동 발생장치, Woofer 스피커, 물, 펌프, 2016
  - 김병직 | 여행, 싱글채널 비디오, 빔 프로젝터, 플레이어, 5.1ch 스피커, 4'31", 2016

하나의 중심에서 시작된 여러 겹들의 원  
물의 솟음을 근원으로 수많은 것들이  
생성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모습이다  
평택, 그것은 물로부터  
시작된 끝나지 않은  
겹겹의 이야기다

택  
澤 동심同心의 리듬

# 하나의 방 - 두 개의 이야기 물, 생명의 근원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창조적인 물질이다.  
물의 생명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파동이다. 또한 파동은 소리와 움직임을 만든다.  
평지의 연못, 평택(平澤)은 그 함축된 생명력을 4개의 川(천)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물리적 공간이다.  
이번 작품들의 구성은 물과 파동과 소리를 통해 평택(平澤)이란 공간을 재해석 하는 것이다.



1 평택의 개념  
평택이란 공간은...

평택이란 공간은...

2 평택의 재해석

평택이란 공간은...

## 하나의 방—두 개의 이야기

물, 생명의 근원.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창조적인 물질이다.

물의 생명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파동이다.

또한 파동은 소리와 움직임을 만든다.

평지의 연못, 평택(平澤)은 그 함축된 생  
명력을 4개의 川(천)을 통해서 확장시키  
는 물리적 공간이다.

이번 작품들의 구성은 물과 파동과 소리  
를 통해 평택(平澤)이란 공간을 재해석  
하는 것이다.



김병직 | 물, 動, Pause

파동 발생장치, Woofer 스피커, 물, 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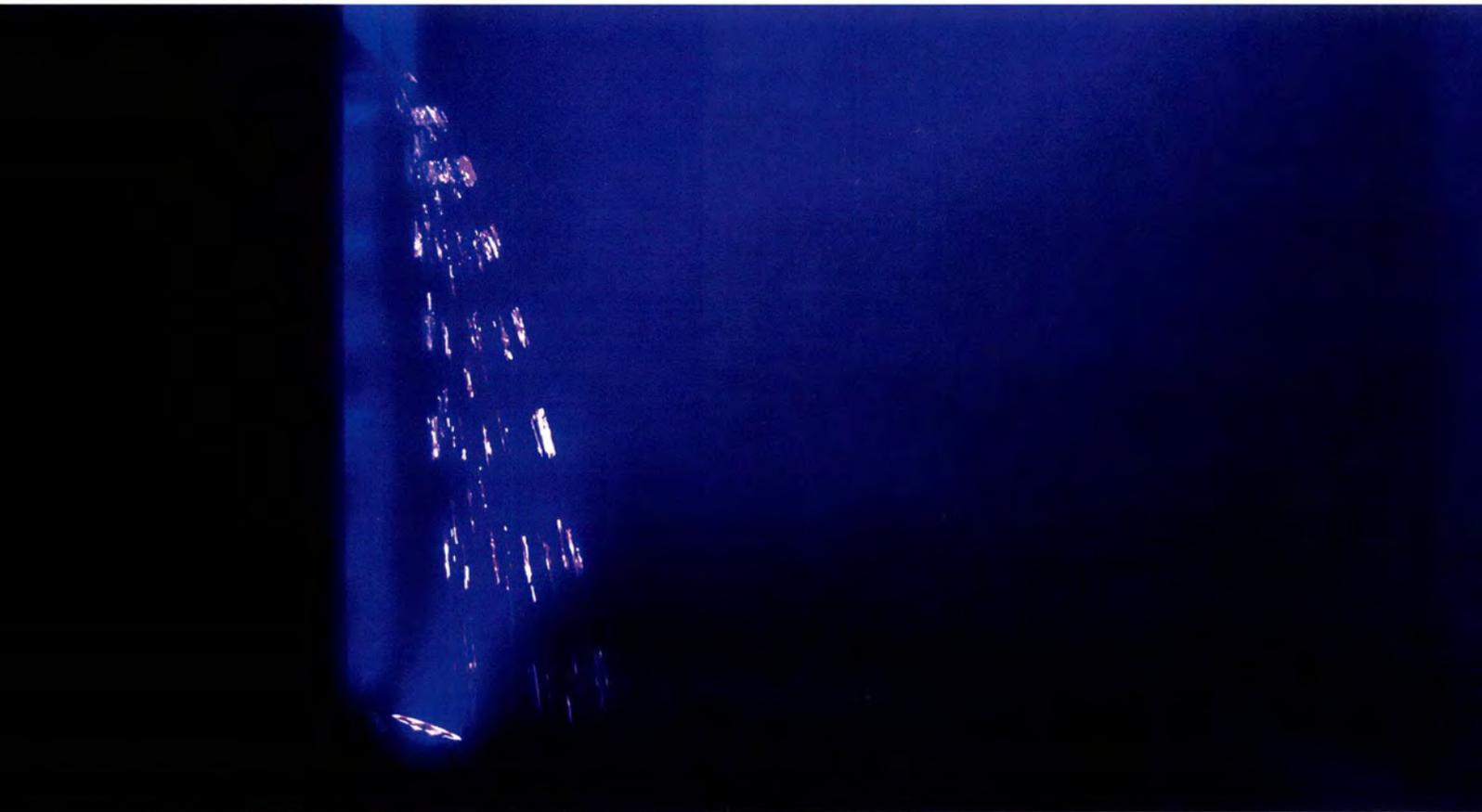
4'31", 2016

흐르는 물을 파동 발생장치를 통해  
마치 정지된 물처럼 보이게 하는 시각적  
일루전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지된 물의  
환상이 만들어내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응집을 시각화한 작업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정지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두 번째 작품과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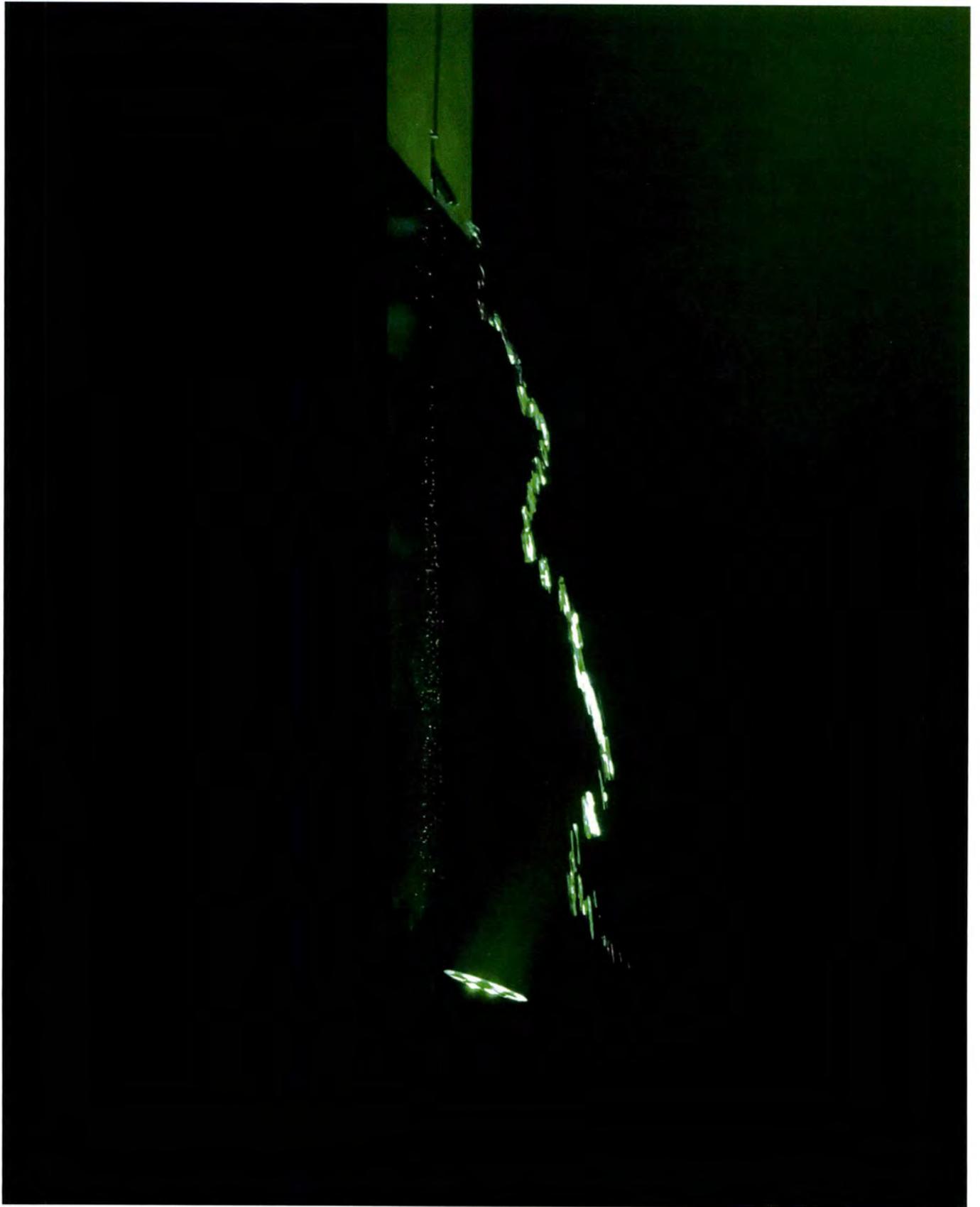
















여 백



## 旅行 Tra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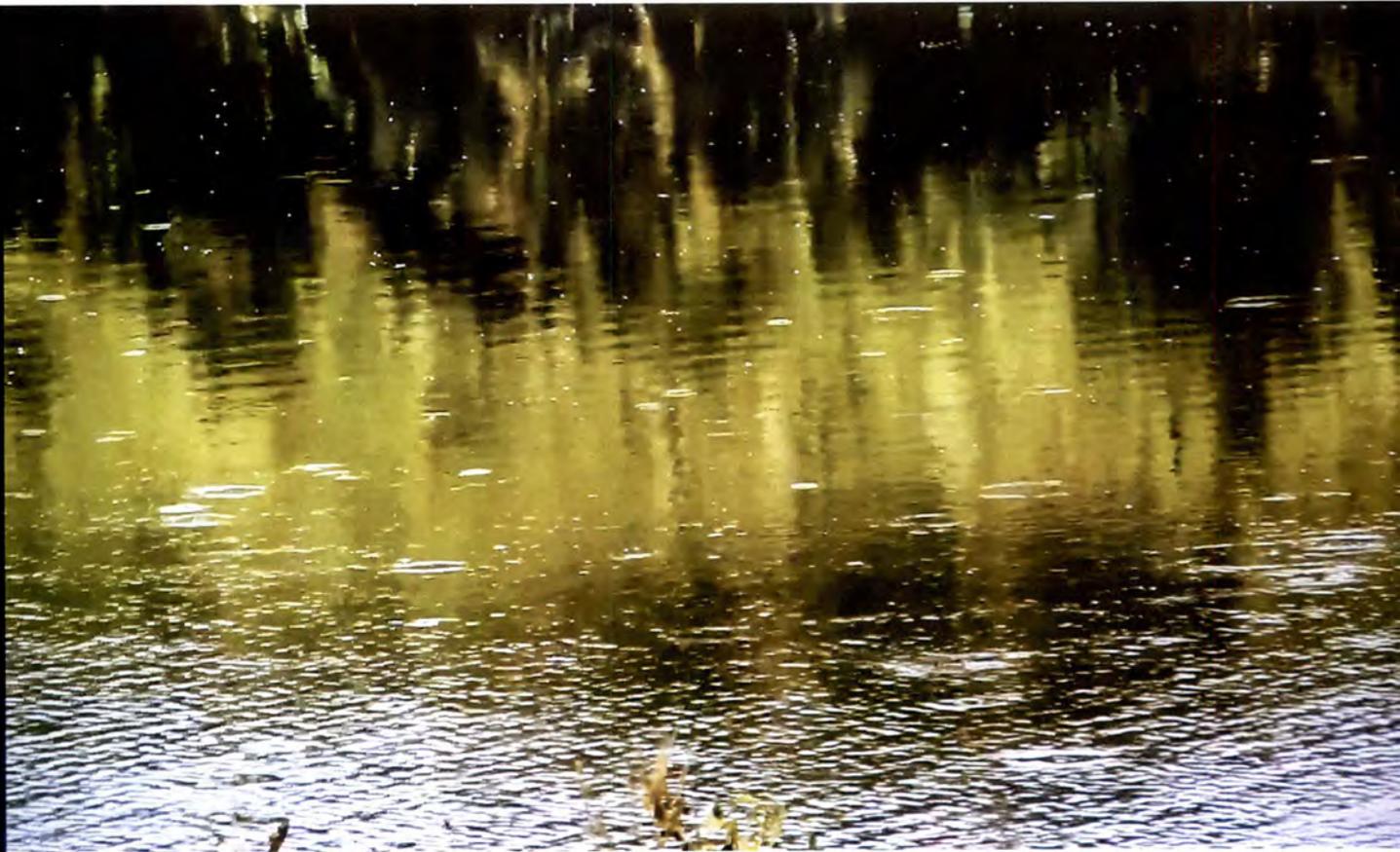
김병직 | 여행

싱글채널 비디오, 빔 프로젝터, 플레이어,

5.1ch 스피커, 4'31", 2016

평택에 있던 이름 없는 무수히 많은 습지가 머금고 있던 생명력의 원시성과 평택이란 공간과 그 공간 구성원이 겪어야 했던, 멀리는 고구려의 문명과 백제의 문명의 충돌과 6.25라는 진행형의 비극이 만들어 놓은 일명 오산비행장 등. 평택의 역사가 만들어 냈거나 만들고 있는 많은 소리들을 안성천의 도도한 흐름과 물결 속에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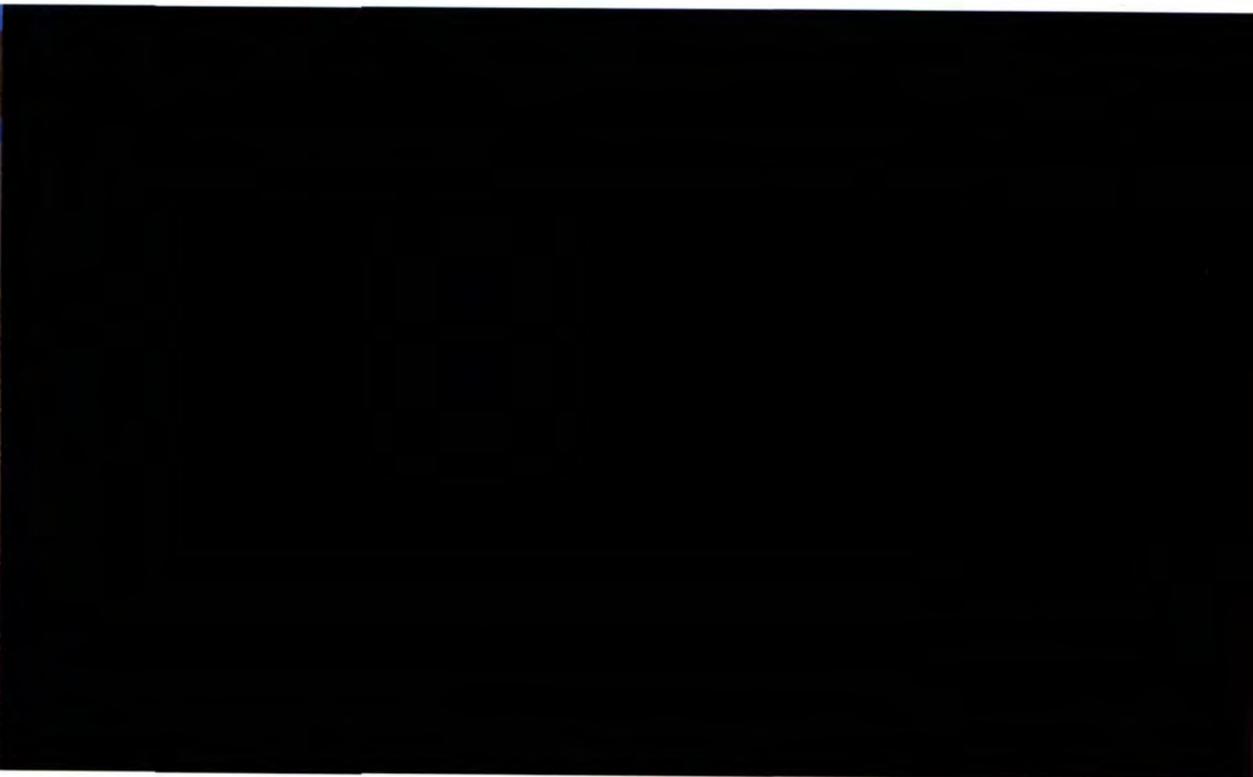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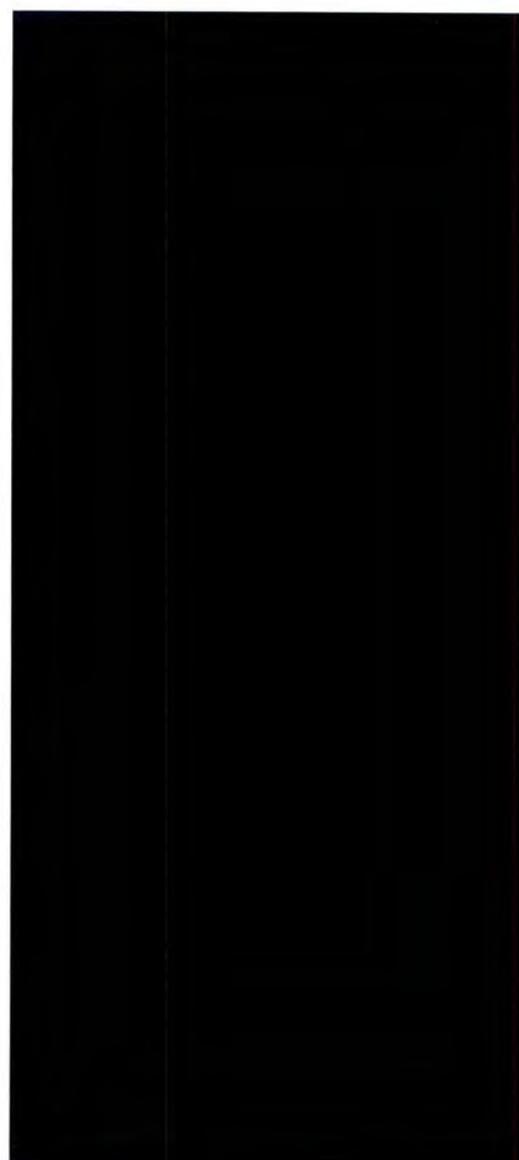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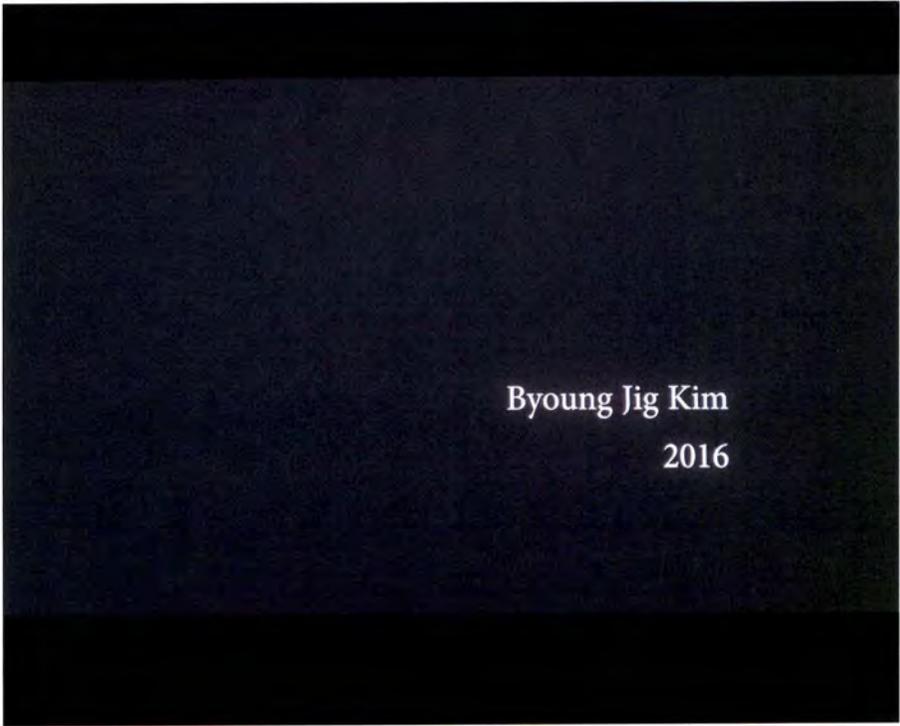












김병직(金炳直) Kim Byoung Jig

**학력**

1995 미국 뉴욕 Long Island Univ. c.w.post  
N.Y.(BFA)

2002 경기대학교(MFA)

현재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SOLO Exhibition**

2016 지붕위의 고양이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유온 예술공간

2006 Blue(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휴 invited  
exhibition)

2004 광주비엔날레 코리안 특급(광주)

2004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대구)

2004 Dreams in Suitcase(Dukwon cube  
invited exhibition)

1994 Landscape Sculpture(Long island Univ.  
gallery)

1992 Born in 1992(Long island Univ.  
sculpture garden)

##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5 중구난방-한전 아트센터

2007 색다른 시각 색다른 경험-수원미술전  
시관

2007 Text in bodyscape-서울시립미술관

2005 新기술기술체험관-미디어놀이터, 광명실  
내체육관

2005 KPAM(예술의 전당)

2004 충돌과 흐름 in-Situ(The 1st Seoul-  
Shinchon Art Festival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2004 이미지 커튼 갤러리 PI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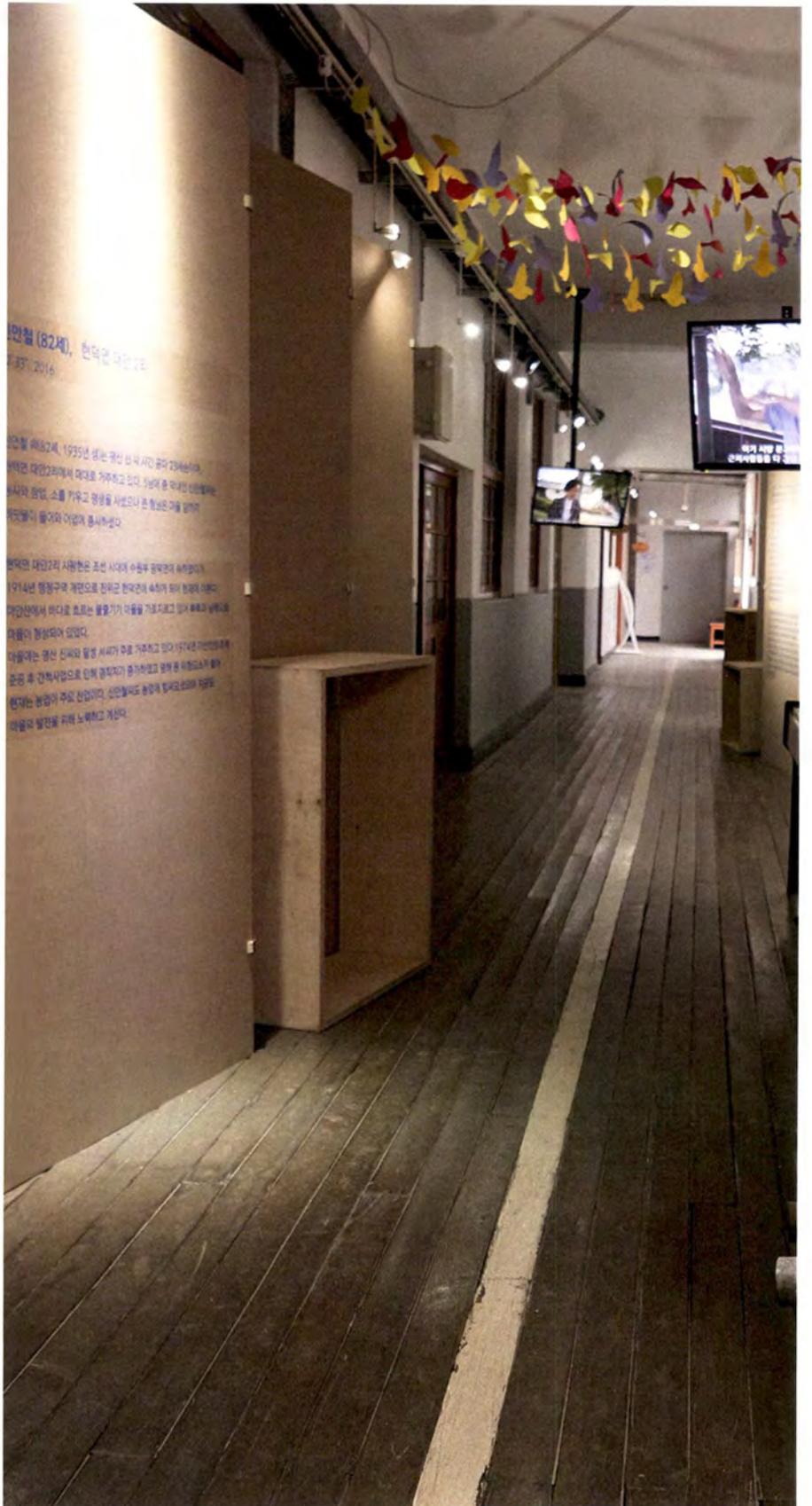
2003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금호미  
술관) 외 다수



누구도 더 이상 중심일 수 없는  
다양한 삶  
살아있는 개체수 만큼 세계는 생성 된다  
죽어가는 개체수 만큼 세계는 소멸 한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는  
생성과 소멸을 전제로 한다  
진솔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것이 수많은 타원을 만들  
미래세계의 예언이다

평  
주 타원橢圓의 변주





이의근, 인원환 | 25'20"  
 신만철 | 12'33"  
 노광풍 | 6'48"  
 안희환 | 8'11"



이의근

이의근 | 76세, 현덕면 신왕리

이의근, 인원한 두 분은 평택시 현덕면에서 태어나 고기잡이와 농사일을 병행하며 사셨다. 열 일곱 살 경부터 배를 타 아산만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 해수면 고기잡이를 하셨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변화했던 나룻터의 마을 풍광과 배를 띄워 고기잡던 당시의 뱃일과 뱃노래, 달과 물의 섭동과 빨이 울던 소중한 물의 기억을 갖고 있다.

**인원한** 옛날 일제 강점기때는 대지주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웠지요. 해방되고 나서 소작하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정부한테 그걸 바쳤어요. 배를 하면서 5년간을 그걸(정부에 쌀을 내는 일) 붓고서 그 내 땅이 된 거예요 지금.

**배는** 한 17~18세 부터 (탔어요). 고기 잡았지... 농사를 지어가면서 고기도 잡고... 옛날에는 (농사보다) 물고기 잡는게 괜찮았어.

**이의근** 그때 농사도 시원찮으니까 부업으로 이거(고기잡이)래도 하면 돈이 좀 나오니까...

전에는 이 동네 전체가 비농가여. 농토도 얼마 없고. 그래가지구 농사 좀 지으면서 부업으로.

배 어업을 하고 그랬던 동네인데 그나마도 아산만이 막히면서 또 어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수면에서 조그만 배들 가지고 붕어 잡는 걸로 바뀌었지.

(수입은) 재미보는 대로 틀리지. 뭐냐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물론 농사 짓고 고기 잡을 새도 없었지만 농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이 고기 잡으러 많이 갔어.

농사가 적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고기 잡는게. 배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40호 중에 한 3분의 2정도? 그때 다니던 양반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나마나 조금 안되는거 우리 둘 남은거예요 이게.

**이의근 다섯명이 한배의 식구야.** 다섯이 먹고 생활하는 것을 (배에) 다 실어요. 지금은 까스니 뭐니 많지만 그전에 배에서는 나무를 뺏어요. 참나무를 잘게 뽀게 가지고...

참나무가 그을음이 안나고 연기가 안나요. 그리고 술을 훑으로 만들어가지고 걸었어요. 불 때는 술을. 그래가지구 밥을 거기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배에서 밥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화장'이라고 해요. 나가면은 한 십여 일 썩은 떠있거든. 바다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야. 배가 집이야 집. 거기서 자고. 먹고. 고기잡는 일하고. 집에는 언제 들어오면 물빠질 적에 고기가 안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집에 와서 몇 일

자고. 배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인원환 (배에서의 역할은) 사공도 있고요. 화장. 영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을 영자라 했고), 또 이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었고...

이의근 사공이라는 것은 이 배, 이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공이고, 말하자면 선장이지 선장.

그러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조그마한 뗏목을 가지고 육지에다 팔러댕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운반을 해서 (고기를) 팔아야 하니까. 영자라는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 거기서 대부분이 배에서 절단난일(큰일) 있거나 그물이 찢어졌거나 다 헤지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다섯이 가줘야 일이 맞으니까. 그래서 다섯 명이 탄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게 강다리. 조기처럼 생긴 가물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뱅어포지. 지금 뱅어포라는

것은 진짜 뱅어가 아니에요.

새우. 또 날이 좀 추워지고 이럴 때면 동어. 동어는 뭐냐면 송어새끼가 다 동어라고 하는데.

이 송어가 한 마리가 이름이 다섯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새끼가 동어 그다음에 모쟁이 그다음에 각치 뭐 이래서 다섯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요새 주로 강다리, 거물치를 많이 쓰지.

철따라 틀린 거니까. 또 뱅어나오는 때가 따로 있고. 새우 나올 때가 따로 있고. 동어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물이 고기나올적 마다 바뀌는 거야. 똑같은 그물가지고 잡지를 못하는 거야.

고기가 작은 고기가 있고. 또 새우젓은 (그물이) 고와야 되고. 그래요 그게...

인원환 그 철이 있어요. 다.

강다리 거물치는 봄에. 사월 오월에 잡고. 뱅어라는 건 음력 팔월 초에 조금 나고. 팔월 스물 나흘... 두주 조금 나고 없어져 버려요.

이의근 새우젓도 지금부터 잡을 때이



인원환 | 78세, 현덕면 신왕리



이의근, 인원환 영상과 텍스트 설치 전시모습



내수면 고기잡이중

고... 새우젓은 물빨 칠 때는 못잡아. 조금 물(이)빠졌을 때 잡아야지 그물에 비해 물이 안빠져서 터져나가잖아. 물빨이 심하고... 누대(검불)가 많고, 그래서 중목 때만 잡는 거야. 그때는 새우 많이 잡았죠. 여기 새우젓을 절구(담는)는 사람이 보통 열 도라무씩... 조금때 오일 밖에는 못잡아요. 물이 쉬어지면 못 잡는 거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아산만이 막히고 나서 딱 끊긴거지. 아산만 막히기 전만해도 좀 즐긴 줄었어도 잘 잡았어요.

이의근 그때는(시장은 없었고) 장사꾼이 들어왔어요. 그걸 받으러. 대부분은 아주머니들이 바구니인가... 그거 갖고 많이 이고 다니고, 지게 장사꾼이 있고... 그때 그사람들 아마 배에서 잡는 걸 직접받아 갖고가면 돈벌이가 됐던 모양이야. 괜찮았다고 해요. 갖고 나서서 파는게...

어업조합이라는 데가 그걸 잡아다가 (판매)위탁시키는 거야. 잡은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달아서. 얼마얼마 잡아왔다

고 영수증을 해주면 나중에 그걸 갖고 돈을 찾는 거야. 그럼 위탁 판매소에서 장사꾼한테 주는 거야.

인원환 아주머니들이 갖고 다니면서 동네 다 돌아다녀. 여기서 이고 발길 닿는 데까지 갖고 있는 거 다 팔 때까지 다녔어요. 그리고나서 다 못팔면 늦게들 집에 들어오고.

여기 사람만 갖고 나가는게 아니고 저기 외지 사람들도 장사를 왔어요. 가지러. 저 충남 강가에도 갖다 팔고 저 물건너개안이 있는데 거기도 가고 저위 길음이 라는데도 가고. 여기서 20리가면 되요.

이의근 처음에 이른 봄에 고기잡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판매소라는게 고기를 주는데 정하는거예요. 우리 배는 고기잡은걸 주겠다. 저기는 물건을 갖다주겠다. 이래갖고 위탁소로 가져가면 뭐 아무나 갖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게. 계약을 하는 거야. 우리 배에서 잡은걸 이리로 가져오겠다. 허가가 되야죠. 허가 다 있고, 경찰들은 가끔 와봐요?.

인원환 옛날에는 어업조합이라고 했지. 지금은 수협. 수협에 이제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고 또 배 허가 있어요. 그게 선적이제 그게. 배이름하고 정보 박혀있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나루터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이의근 그거 (나루터) 없어진지는 한 50

년전에 없어졌어. 만이 막히기(도) 전에 없어졌지. 이거(만) 막히기전에도 그때만 해도 교통이 차구멍이 꽤 있었던거지 차가 다닌다 할 적에는 없어진거야 이게 (나루터).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 **어업이 한창 재미를 볼 적에는 이 나루터리는 데가 이 술집이 한 20~30집 됐어.** 그러면 술집마다 색시를 두고 장구치고 술 마시고 노는 장소가 그렇게 많았어요. (나루터 근처에도) 산 뺑돌려, 산 중턱에도 다 있었어요. 포장치고 와서 막 놀고, 큰 관광지였어요. 뱃사람들도 그럼 배들여와서 배대고(정박) 짐있을 적에는 거기 들어와서 술먹고 놀고 가보면 싸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원환 건달들이 다 이리로 모였던 거예요. 옛날에.

이의근 (없어진지는) 한 50년전인데. 별이가 안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하하... 그사람들이 어디로 간거도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재밌죠. 여기 저기 보면 서낭당이라는 내려오는 길있죠. 거기가 서낭당이야. 지금 길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래 거지가 거길 넘어올 적에 바다를 보면서 거지가 춤을 추면서 왔대요. **경치 좋고 먹을 거 많은 데라고 거지가 춤을 추며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한가지 나쁜점은 그 대신 나쁜 사람들도 많이 끼거나. 깡패라고 그러지 깡패.

이런 사람들도 많이 끼가지고 죽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 싸움 나서 구경가보면 개발에 못들어가게 말짱을 박아놨는데. 그 말짱을 빼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것도 봤다고 실제로. 그사람들이 싸우는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그때 구경만 했지 그 원인은 모르는거야. 그게 그전에 말이 있잖아요. 제일 편한 것이 뱃사람 부인이 제일 편하다. 그래도 수수하게 벌어다 집에 주니까 일 그렇게 많이 안하고 제일 편한 게 뱃사람 부인이 제일 편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원환 그만큼 고기가 잘 잡혔다는 말이지. 그때(선친 세대) 배부른 사람은 괜찮았죠. 고기를 워낙 많이 잡았으니까. 그때는...

이의근 만선이 됐건 뭐 저기했건 자기 몫이 들어오는 게 다섯이 있으면 나눠야 돼. 왜냐하면 배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배 임자가 반을 갖습니다. (다섯명 중에 배 주인이 있건 배 주인이 따로 있건) 반은 주인 몫으로 친단말이야. 만원으로 했으면 오천원은 주인 몫으로 치고 오천원 가지고 있으면 다섯이서 천원 풀밖에 안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큰 저기(이익)는 없어요. (배)주인도 엄



청난게 아닌게 뭐냐면 고기 잡는 어구를 전부 주인이 책임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물도. 배도. 어구를 다 주인이 준비해 줘야하기 때문에 크게 이득 될 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인원환 출몰이라는게 있는데 출몰(고기 잡이 나가서 쓰는 먹을 것 등에 쓰이는 뭇)을 제하고 나머지를 나누는 거지. 반가지고...

이의근 그래서 배주도 큰 이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실은 사람 다섯명을 동사라고 해요. 뱃동사라고. 동사나 뱃주인이나 큰 이득을 못 보는 거야... 동사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배가 크면은요 배가 우선 넓어지잖아요 그물이?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더 나지.

(배 안에서 주로 먹는건) 밥이지 뭐. 먹는 거는 고기를 상시 잡으니까 생선은 안먹는날 없이 먹어야 되고. 최네집고 좋은 것만 골라 먹지.

인원환 옛날에 집에서는 보리쫄사리를 먹었어요. 근데 배에서는 쌀밥먹었어요. 여름에도... 보리로는 어떻게 할 수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물때가 있어요. 때가. 그물을 넣고 금방 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대여섯 시간 있다가 그물을 건져요.

이의근 한번 넣으면 물이 다섯시간 여섯 시간 나간단 말이에요.

빠지는 물이. 줄감이라는 물이 꼭 빠지는 감에 그때 걷는 거야 그물을. 물힘이 셀적에 그물 뽑기가 힘들어서 못뽑아요.

인원환 그러고 그때 걷어야 또 물이 되돌아오거든? 그때 안건으면 어구가 절단나요. 그때 시간 맞춰 걷어야지 그게. 그것도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밤이고 낮이고 하루에 40분씩 물때가 늦어지거든요.

이의근 그대 대부분은 사공 아니면 영자라는 사람들이 시간을 재. 지키고 있던 말이야.

인원환 물이 움직이는게 달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이게! 그게 달시간하고 맞아 들어가야지 그게 40분마다 차이가 생겨 뜨잖아요 물때도 똑같이 그게.

이의근 지금 저 달력을 보면요. 저 달력에 지금 물때가 나와 있어요. 저 달력 한번 보세요. 몇시몇시 있죠?

인원환 뭐. 조금 그런거 다 있잖아요? 몇매... 한매 두매 아마 열한매까지 있을꺼여. 모시가 또 있고

이의근 저 물때 시간은 요기하고는 안맞는게 뭐냐면. 저건 인천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 그러니까 인천하고 여기하고 거리 사항을 조정을 해가지고선 요기 사람들이 우선 시간을 잡는 거여...

인천은 여섯시간 나오고 여섯시간 들어  
가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녀. 여기 여기  
는 나가는 시간은 길어요. 한 일곱시간  
이상은 나가고 뒤로 다시 다섯 시간밖에  
는 안되요(들어오는 시간이).

이의근 (여기는 인천보다 물 들어오는 시  
간이 짧아) 왜냐면 여기가 개고랑이니  
까. 여기는 말하자면 이 앞에는 물이 깊  
어서 물이 찻다가 나가는데, 저 평택 개  
고랑은 그저 디미는겨. 여기서 미는 힘  
에서 디밀었다가 여기(신왕나루 앞바다)  
많이 빠지면 또 주춤하고서는 여기서 확  
쏟는다고... 바다가 물 댕기는 게, 얼마  
나 넓으나 좁으나에 따라서 물시간이  
틀려요.

인원환 (수심은) 깊지는 않았어요. 깊은  
데는 한 9메타. 차면은 한 15메타. 감에  
는 한 8메타, 9메타 정도 깊은데 배가  
꼭 깊은 데 와서 스거든요. 골에 와서.  
(닷을 거기다 놓는데) 왜냐면 골에 이 물  
이 한대 합쳐 다니는디 골에다 합쳐서  
흐르거든 그 깊은데 가 서는게 골이거  
든. 거기에다가 그물을 치는 거지

이의근 예, 이 사공이라는 분이, 사공이  
라는 양반이. 왜 사공이냐면 배도 인자  
잘해야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잘 잡  
아야지만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잘 많이 다니겠다.  
그 사람들이 터를 잘 잡아줘야 혀. 사공

이. 그건 경험이어 경험.

인원환 그전 부터 내려오는 그걸(노하  
우) 듣잖여. 배우잖여. 먼저 뱃사람들  
한테 어딜가면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힌  
다더라. 그게 경험이어. 그거 내려 오는  
거여, 전설로 내려오는 거여. 자연적으  
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 배  
우는 거지.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하고...  
못하는 사람이(랑) 처음 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한  
거여.

그럼 그 사람이 인자 없어진면 고 먼저  
배운 사람이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고.  
사공 따라서.(같이 타는겠다는 사람들  
도 달라질 수 있지) 인기 있는 사공이 있  
어요. 있는게 뭐냐면 이 고기를 잘 잡는  
다는 뭐 이런. 돈을 더 주는 수도 있어  
요. 깃반. 한뿔반.

이의근 깃반이라면 한뿔 반을 먹는 거  
여. 다른 사람보다 반 뿔을 더 먹는 거  
여. 그래서 사공이 잘해야하는 거요.

인원환 그렇지. 배 오래 탄 사람이죠. 배  
로 다 늙은 사람이지.

이의근 (배에서는 기상이 중요한데) 기상  
예보라는게 사실 라디오도 없죠. 사공  
이라는 양반이 뜬 나와서 아침이고 저  
녁이고 낮 천기를 봅니다. 구름이 어떻  
게 가며 구름이 어디서... 무슨 새털 구  
름이 온다든지



인원환 바람, 그걸 보면 알아. 구름을 봐가지고 바람이 올건지 안올건지를 이걸 대충은 안다고 웬만하면. 저녁에 와서 바닷가새에 파도 치는 소리가 철석철석 나요.

바람은 안부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다음날) 바람이 부는겨 그게. 그게 **빨이 운다** 소리가 그게 (그말이여)

이의근:그게 이 사공은 백일 정도는 다 본다는 거. 웬만하면 하루전거는, 몇일거는 못봐도 하루전에는 본다는거.

인원환 소리가 있슈. 닻 감는 소리. 그냥 내가 오늘 저녁 빨이 올면 내일 낮에 바람 분다~~ 닻 감는 소리. 그것도 제목이 있어요. 소리 한 대목 들어있어요.

이의근 그러니까. (사공은)다른 사람보다 반몫을 더 먹는 그 역할을 해야돼요.

인원환:(제일 유명한 사공은) 요 너머 동네에 살던 분인데 그거 장한성씨가 유명했었죠.

그이가 오래했어요.장한성씨라고.

이의근 무자게 많아. 그양반 말고도 니도 내도 사공이 많았었는데 사공자리가 다 돌아가셨어.

요기 이종구씨 그 양반도 사공이었어. 배도 굴리고, 사공을 한 사람이 여럿 댔었는데 다 이제 돌아가셨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다 돌아가시고 몇 사람 남은 사람도 떠나서 판데가 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배타고)나간 사람 한서너 여덟 명밖에 안되고. 그리고 다 돌아가셨어요. 다 백세이상 된 분들이니까.

이의근 그리고 이 고기들 보다도 많이 잡는 것 보다도 그물을 꾸며놓 적에 금이, 처음에 넓어가지고 차차 요렇게 좁아들어오는데 아무렇게나 잡아서 꼬매면 다 찢어집니다. 이거 한코 한코 줄이 딱딱 맞아야혀. 물이 암만 세게 해도 그게 절대 굽이(휘어서 구부러진 곳)가 없어야 돼.

사공은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물 재단을 잘해야 돼. 재단. 오래 오래 본 것이 바로 기억이요. 축적이 되는거요.

(우리 둘은)사공은 못했어요. 나이도 있어야하지만 사공 할 정도가 안되는데 이게 (아산만 이후로)고만 났기 때문에 사공은 못해봤습니다.

인원환 그게 나이롱 그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 어업이 한참을 성행했어요. 아. 승어 같은거 그런거 많이 잡았어요. 준치 같은거 삼치같은거 요 조 아래 내려



가서 아산만 여기서 꼭 잡았어요.  
 그게 들어가고 그게 그 그물이 나온거  
 요. 이거(뱃일) 막 관두고 여기(아산만  
 호)서도 한 몇 십 년 고기를 잡았지. 예.  
 한 25년 이상 잡았나 봐요. 마흔 넷까지  
 는 저 바깥에 가서 잡고 이안(내수면)에  
 들어와서 또 잡고.

이의근 사공이 되려면 그사람이 눈재주  
 가 좋아야 되요. 그래야만이 사공이 되  
 는 거지. 젊은 사람 사공도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요. 근데 능력이랑 눈재주  
 가 없는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해  
 도 이건 못하는 거여.

인원환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는) 다알  
 아. 다알아요. 고기를 하도 잡으면. 잡는  
 터가 있어요.  
 아주 정해져있어요. 배가 서 있는 자리  
 가 있어요.

이의근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그물 만드  
 는게 문제요. 그물 만드는 것 만큼은 아  
 무나 못하는 거라. 제일 중요한게 그거  
 요. 그물 재단하는 게.

(정박 해 놓은 다음에 물에 나왔다 들어  
 가기도 하는데) 나왔다 들어가는게 힘든  
 게 뭐냐면. 물심이 서가지고 조그만 걸  
 가지고 나왔다 배를... 정박해 논 배에  
 대기가 엄청 힘든 거여. 그러면 그거 저  
 기한 사람은 가새(물 가장자리) 나가기  
 가 힘들고.



어업요 시연중

인원환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계속 떠  
 있거나 흔들려도 저는) 멀미안해요.

이의근 바람이 뭐 태풍이 분다든가. 바  
 람이 굉장히 그냥 막 (세계 볼 때) 그럴땐  
 멀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 바람 많  
 이 불적에는 힘들죠. 뱃멀미도 처음에는  
 조금 하는데 그것이 장기간 오래 바다에  
 있으면 좀 스스로 없어지더라고 많이 그  
 게.

인원환 그 큰 바람이 불면 배가 피해  
 요. 바람 먼저 내빼죠. 닻을 표시를 해  
 놔요. 닻줄에다가.

부표라고 하나... 부표를 만들어 띄워 놓  
 고 이렇게 돌아서 바람 안 치는대로 피해  
 요. 그러니까.

인저 바람 자면 고 이튿날 와서 또 그 부  
 표를 붙잡고 닻을 매는 거지 배를.

이의근 비매(물래 물어둠)만 하죠. 닻은  
 놔두고. 그래야지 그 바람 불적에 가서

닷을. 힘든 걸 걷어 올려... 닷 끌고 그렇게 못가요.

그게 배에서는 뭘 붙잡던지 그 노동요 소리가. **뱃소리가 나와야지. 그래야 힘이 합쳐지는 거지.** 줄만 붙잡으면 배에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여. 어업요죠. 어업 노동요라고 해요.

인원환 (줄을 혼자 잡는게 아니라 여럿이 해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받고 (힘이)덜 들어요. 합심이 되기 때문에 소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의근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저기하면 (힘을 쓰면) 합심이 안되거든. 그래서 그 노동요라는 것을 뱃소리를 해야만이 되는 거요. 거기서 줄을 하나를 잡아도. 삼각대 하나를 붙잡고 밀어도 뱃소리가 나오게 되어있고...

인원환 (여자들은)집에서 일했어요. 뭘. 밭 농사 같은거 지내고 옛날에는 그거 뭘. 부레(메주콩. 김부레기) 심고 그거 말고도 일 많았어요.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안에서도 논일도 많이 했어요.

이의근 (여자들은 어업은)안하죠. 이것이 말여요. 옛날엔 이 배에서 무슨 그물 일을 한다든가. 줄을 감는다든가 한다고 할적엔. 여자

들 절대 근처에 오질 못했어요. 재수없다고.

(여자들은)배도 안태웠지만 이 그물 같은거 이 줄 같은거 저기(만드는)하는데 여자들 넘어가면 큰일 나요. 절대죠. 근디. 지금 여자들은 배를 안타나 줄을 안잡나. 진짜. 참 좋은거죠.

인원환 그거가지고 유심히 하던 사람이 있어요.

저건너 임규환씨라 그분은 어디 상가집에 갔다와서 그물 봤다고 난리 친 사람이 있유. 부정했다고.

이의근 (집에서) 굿은 글씨 모르지만 굿도 하는 집은 있지만 아침에 장독에 청수 떠놓고, 우리 남편 무사히 저기(만선)하게 해달라고 비는 분들 많았어요. (개인 집에서는) 굿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인원환 배에서도 한 달에 두어번씩 음력으로 열아홉날 저녁에 들물에(고사) 하고 스물 열세날. 음력으로 스물엿날 저녁에 들물에 또 하고.

이의근 물때로다가는 두매(두물)요. 매수로 두매.

인원환 **그날 물이 살아.** 그날 저녁 들물부터. 물이 산다 그런 얘기가. 물이 산김한다. 물이 살아진다. 이게 그게 물이 점점점 세어 지는 거지. 인저 저 일곱 여



이의근, 인원환 영상과 텍스트 설치 전시모습

뉘날 까지 세져요.

우리(집에서) 서낭이라는 그 곳도 여러 번 해봤거든. 옛날에 뭐 당 제사 지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당 제사 안지내요. 오래 됐지.

이의근 지금 서낭도 믿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인원환 옛날에는 이 바다 가새(가장자리)에는 당지(당집)가 있어요. 옛날에는 바다 나가서 죽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바다 나가서 뭐 태풍같은 거 만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지.

배도 뭐 좋지도 않고 배도 험고 그러니까. 그러가서. 당에 가서 당 제사지냈죠. 옛날에.

이의근 (그래도)여기는 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돌아가신 양반

들도 하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인원환 (저기 포승 쪽에서는) 굴 따러 가지고 그계. 그래서 거기가 (마을 사람들)제사가 다 같은 날이었다고.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요. 거 동네가 봄바워라는 건데 저아래 멩거지 밀창이라고. 제2의함대. 그아래쪽으로 방등역 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여.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평택사이버고향전시관,

평택문화원

장소협력 | 신왕1리 마을회관



신만철 | 82세, 현덕면 대안2리

평택시 현덕면 사랑현에서 대를 이어 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사셨다. 마을에 물이 들어올 때 큰 형님이 뱃일을 하신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산제를 지내고, 마을 장례 때 상여소리를 하시는 등 마을풍속을 유지하고 마을정신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살아계신 마을의 역사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여기나(신만철 씨 자신)로 30대 되면 좀 깊은 고향이에요. 이 동네 이름이 사랑현인데, 숲(집사), 廊(행랑 량), 峴(고개 현) 이라고도 하고 물 현 자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고개 현으로 봐요. 현재 저 아랫동네(현덕면 대안리)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작지가 굉장히 넓거든. 그래서 상계리 사람들이 우리동네(사랑현)를 안지나가면 안중 장애도 못 가. 그렇게 우리동네가 포용을 해가지고 살다보니까 우리 동네는 저(마을)사람들도 친구, 저(마을)사람들도 친구, 여기(우리동네)도 친구, 근데 저(의경제)사람들이(뺨골)사람들(끼리)는 마음이(손등을 대며)이거야. 그때도 그 권위의식이 있어요. (아산만방조제가 생기기) 그전까지(물이)들어왔지. 배가 많이 들어와. 배

하나만 들어가지. 거기는 소를 끌고 가야(어물)가져와. 길이 좁아가지고, 소가 그런걸 심는 게(보조도구)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여까지 저기 소금가마를, 소금가마도 시방 20키로 담잖어. 그때는 그냥 가마로 쳐가지고, 소금가마가 따로 있어. 거칠게 그냥 지어가지고서 거기다 소복하게 담은 거여. 근수로 한 50근도 넘을걸.

그러면 소를 데리고 가서 소에다 실어가지고(오고). 또 굴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거는 개들이 직접 짚어지고 와서, 그때는 오쟁이라고 있어. 굴 담은 오쟁이. 짚으로 엮은 거. 그래서 물이 새니까 밑창에다가... 함석을 지개에다가 대놓고 물이 여기 이렇게(양쪽으로) 떨어지지. 그러면 그냥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타작해가지고 퍼다(바뀌 먹었지). 콩 털 적에 보면 콩, 수수... 보리는 안쥐. 왜 안주는고 하니. 여름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7월 아래 보리를 전부 찌서(짚어서) 쌓아 놔야하거든. 그 쌀들 농사지어서 백가마면 백가마 다 가을에 짚어야 해. 그 조그만한 방앗간 다니면서 거 전부다 짚어서 큰 독있어. 잘 사는 집은 그게 한 댓 개도 되여. 그거하나가 다섯가마도 들어가. 쪽 그냥 갔다가 놓고 할아버지 대감, 할머니 대감, 아버지 대감, 대감은 항아리 보고 그러는 거여. 여기서 장은 안서고, 안중에(장이서), 생활권이 거긴데. 인제 안중 같은 경우도 그런 거(소금이나 어물)는 여기 와서

사가지, 소달구지로.

그래 인제 해방되고 바로 도라쿠라는거  
알어? 트럭. 일본 놈들이 여기 정치할  
적에 가지고 와서 놓고 간 거여. 그래도  
차가 도움이 되요. (시동 걸 때)경운기 마  
냥 돌려야 터져. 그런데 기름이 없고 아  
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나무 숲, 그렇지  
않으면 아주까리 기름 콩 같은 거, 솔나  
무 기름. 이런거 전부 갖다가 쓰는 거여.  
일본놈들이 비행기를 박달나무로 맨들  
었어. 그거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거여.  
제일 혼난 것은 그놈들이 신작로(를 만드  
는데)인력이 없으니까 동네마다 젊은 사  
람들 (데려다가) 부역단하고선 죽거리나  
(주는)거지 뭐. 그래도 그거를 할라고 그  
냥... 그렇게 해서 그 순전히 한국사람이  
그렇게 노예가 된거여.

왜정 때 우리가 살은 고생, 우리 조상들  
이 살은 고생을 (말)하면은...  
그때 왜놈들이 말년이니까. 기름이 없  
어. 입을게 없어. 기름은 저런데 맵기면

서 솔나무 관솔을 해가지고서, 어른들  
이 따면 (소나무)밑창에서 (아이들이)  
최 주워 담아 와서 가공을 해서, 기름을  
내면 재들이 가져가는 거여. 또 인제 그  
쇠, 쇠가 없으니까. 인제 여기 낫그릇,  
이런게 여간 많어? 쇠 가져가는 거여.  
똑똑히 보는 거여. 아, 이게 아까워가지  
고, 조상들에 물려받은 거니까. 아까워  
가지고서는 그냥 가을에 벼를 비고(베  
고) 타작해놓으면 그 속에다가 묻는 거  
여. 그거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굴을 하는고 하  
니. 하여튼 암만 짚탕이가 커도, 그 철사  
가 요만(연필길이)한데 강철인가봐. 찌르  
면 들어가는 거여. 달그닥하면 쇠여. 이  
렇게 악날하게 요놈들이... 그러면(틀키  
면) 그 사람은 거기서 점수에서 떨어져.  
근데, 뭐이가 점수에서 떨어지는고 하  
니, 이저 우리집이 예를 들어서, 군인을  
나간다. 강제 징용을 나간다(하면) 우  
선권이여, 그 (틀킨)사람들이 우선권이  
여. 근데, 그사람 결정을 누가 하는고 하





아산만방조제건설현장

니 면민에 행정정보는 놈이 하는 거여. 일본 놈이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큰 형님도 걸렸어. 그때 큰 형님은 그래도 기술이 있었는지 우성면 저 현덕에 토단이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발굴한 거여. 그거를. 근데 토단을 캐려면 물이 나오니까. 그때는 방아. 이런거로 그거를 퍼내는 건데 그거를 시키려고 일본놈의 탄광을 안가고 그거를 한거여. 다행이지.

그 저쪽(현덕초등학교 광덕분교) 건너가면 집 한 채가 있죠. 거기가 왜정 때, 일본 놈들이 땅 많은 놈들한테 너 시사해라. 친일파조 따져보면, 그 사람이 땅을 내놓아서, 분교마냥 여기 근처사람들이 다 여기로 걸어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일곱 살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 좀 우습지. 시방은 의무 교육이니까, 무조건 나이만 차면은 병신이고 뭐이고 다 받아들였는데 (그때는)시험을 봐요. 시험을 뭘 보는가 하니 열손가락 움직이고, 저기를 뛰어갔다 오라고 하면 몇 분에 갔다 오는 거.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

여.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시고. 하니 (그 때 교육 시켜서) 씨 먹을라고. 평생 우리 한국을 지배하려고 재들이 그렇게 했는데. 3학년이 되니까 군사훈련을 시켜. 체육시간이여 그제. 저 나무 이런 게 슬포기(소나무) 쪽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뭐하고(군사훈련) 해. 삼학년이 될 알아.

우리 땡길 적에는 여름이면 신발을 안 신었어. 맨발이여 무조건. 겨울에도 신발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쫓아 신겨, 고무신은 못 신었지. 이렇게 땡기다가 그냥 사오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거여. 해방혀도 모르지 뭐. (그 때가) 방학이니께. 팔월달이니께.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때리고 그냥 이노무 새끼들 가라고 그러드라고. 왜 가라고 그러느냐구. 반응을 하면 이노무 새끼들아. 해방 됐어. 빨리 가라고. 그러고 나서 한 열아홉명이 와서 전부 때려 부수는 거야 학교를. 이가 갈린거지 뭐. 따지면 뭐 그까짓 놈에 집이 문제여? 해방



아산만방조제

이 됐는데.

그래가지고선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도 참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목화라는 거는 다 가져 갔어요. 목화를 따서 봉투를 하나(씩) 그리고 씨 빼서, 또 인저 숨은 숨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급하니까, 인제 목화만 가져가는 거요. 그리고 목화대는 뭐를 하는고 하니, 크게 이렇게 묶어요. 그러고는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서는 개들이 파주면 그 놈에 것을 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겨우내 얼고 그렇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면 봄에, 우리도 땀기면서 벗기는 거여. 노인네들이 그냥 큰 메를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꿰가지고 그러면 껍질해서 묶어서 공판(한다고).

그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좌동농장, 국민의 땅, 현덕에는 일본 놈 두 사람이 땅을 엄청 산거여. 근데 그것도 그냥 뺏은 거여. 따지면 뺏은 거여. 그리고선 그 관리하는 사람을 친일파 애들 두고서는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니까, 인제 그 3.7제가 들어 간거여. 요거 농사짓는 거는 애들이 거름도 다줘, 벼도 주고 다 준다. 나중에 개들이 70%를 가져가, 재들이 뺏어가. 다 쫄쫄로 주는게 아니라, 이거 경비 나온(땃가)라고 뺏어가.

인제 6.25 이렇게 나고서는 우리 대가 부모들한테 죄송하다는 것은 그거 자식 하나 가르칠라고 살릴라고, 내가 이제 시방 33년생인데 34년으로 되어있어. 왜들 이러느냐. 백 살을 먹어도 홍역이 끝나야 출생신고를 해야. 그렇게 그냥,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자기는 누룩밥을 먹어도, 자기네 자식들은 어떻게든 보리밥이라도 먹일려고 이렇게(우리가) 길러졌어. 명이 길어서, 운이 좋아서, 부모덕을 보아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6.25가 나고서는 저도 가서 싸움도 하고 사람도 죽여봤어.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여. 나중에 우리가 휴전을 하고, 제대를



하고 이렇게 나 하나로 끝날 줄 알았어. 우리 손자들이 다 제대를 했어. 그래서 아마 우리도래가 그거는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할거여. 제일 억울한 게 그거여. 그래도 좀 그전에 정치라도 잘했으면, ... 독일 보쇼, 독일, 얼마나 저기 위대한 나라요. 시방까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분한 게 그거여.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끼리 모이면, 전쟁 갔다 온 사람끼리 모이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네. 자식들이 어떻게 됐건, 났으면 좋겠네. 그래야지 대한민국 정신차려' 시방도 싸우고 있잖아. 하도 저 놈에 새끼들은 서울을 쑥바다로 만드는지 불바다로 만드는지, 이 야당 놈에 새끼들 싸우고 있잖아. 제일 원통한 게 그거여.

그 인제 그 이승만 정권이, 그 정권을 모르는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을 대한민국의 만국의 역적이며, 이승만이야. 인제는 다 죽었어. 그걸 누가 죽이고 하니 아마 아실런지는 몰라도, 광영주 이 사람이

총독부의 경찰로는 왕이었어. 한국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다 죽었어.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니 일본놈이 가르치는 거여. 너 저놈 니가 알아서 해라. 다 죽인 놈이며, 그 이승만이야 정치 잘 못 꿰어내니께 이렇게 광영주를 끌어 들인거. 그래서 이기봉이라는 놈, 광영주 이 두 놈이 우리 망해는 거아너. 우리 3.15 부정선거, 우리 눈으로 똑똑히 제대로 가서 본거여.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 우리 한국에 정신들이 학생들이 그거를 4.19를 일으킨게 다행이며, 이게, 그 때에 안 일으켰으면 개네로 넘어 간 거여.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윤보선씨라는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장면씨 국무총리를 한 것 아니며.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장면이가 독선을 한거여.

나는 왜정 때 그 개네들 글자들 좀 배우고서는 무학자요. 공부를 못했어. 그레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 살 거나 하는 제일 자랑거리가 보통 하나

여. 해방이 되면서 지방까지 우리는 산  
제 있잖아요 산제를 그저 모셔.(지금까  
지도.. 그덕에) 인제 젊은이들이 잘 하  
는 거여. 옛날에 풍속 이런 것을 지켜줘  
서, 그런 것은 잘하는 거라. 그것은 잘하  
는 건데, 하다보니까 이 현덕사에 이 평  
택시에도 산제 모시는 곳은 거의 없을 거  
여. (그런데)우리가 나쁜 거(잘못한거)는  
산제 지내는 자리가 좁. 성의껏 해야 하  
는데 동네가 못 살으니까 그냥 그대로 산  
에 가서 길도 그냥 해쳐가면서 젊은이들  
이 가서 그냥 하는 것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평택에는 풍어제가 있어. 저 현덕에 풍요  
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마을에 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했어). 여기에 산제를 지  
낸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 고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또 물도 거기서  
떠다 써야 되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  
데)... 그거 아니면 다 사라져 우리 동  
네. 그래서 그거라도 좀 살렸으면... 음  
력에 10월 2일 날 해요. 10월 1일 날 할라  
면은 9월 30날 (장을) 봐야 되거든 상도  
뜨고... 우리가 26살에 그걸 했어요. 그  
때 여기는 제관이 있고 집사가 있고 제관  
은 나이 많이 잡순분, 거기서 축문 읽고  
뭐하고, 집사라는 사람은 심부름하는  
사람, 아이고 혼났어요. 물도 저 지계에  
다가 짊어지고 저기(아래)서 사는데 저  
꼭대기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여. (그리  
고) 오는 거여 집으로. 젊으니까 재미났

어요.  
추석하고 설날 같은 때에 이런 때는  
하루를 놀아. 명절은 3일날까지 놓고,  
그리고 보름날은 그 농기구라고 해서  
짚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을 열 아홉  
날 다 만들어 봐야해. 그걸 가지고 저  
1년을 쓰는 건데, 또 있는 사람은 그날  
은 쌀밥을 쥐요. 그날은 그러면 배고파  
서라도 가서 하고, 또 저 사위가 농악도  
보고 뭐도 보고, 차려서 이웃도 맥여.  
없어도 인정으로 살았지. 참 좋았다고  
그렇게. 근데 그런 시절은 안 올거 같아  
요. 세상이 바뀐대도 안 올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례라는게 참 힘들었어요.  
동네에 양반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우선  
그 동네에서 어른들, 그때 이장. 그때 새  
벽에는 맹인(망자)모시고 하는 것을 먼  
저 알려 줬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삼십대에 우리 어머니. 그 동네 땡기면  
서 매장을 다 했고 또 우리 고모들 또 다  
땡기면서. 아마 내가 현덕에서 (상여소  
리를) 최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을 거  
야 아마.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작은 형  
하고 큰 형하고 이렇게 했는데 큰 형님이  
큰 선언을 했어. 어머니 아버지 두(분).  
내 부모는 우리들이 해야 한다. 왜 남의  
손을 빌리려 하나. 그래서 열심히 배웠  
어. 하다 보니까 동네서도 모르는 사람  
이 염치모르고 남의 손을 빌렸지. 그러  
니 우리는 (식구들이) 전부 땡기면서 하  
게 됐지. 어느 날은 장례식장이 생긴 거



신만철어르신 이 상여소리에 쓰던 종

여. 이게. 근데 그거(장례식장)를 (이용)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이웃이 모르죠. 옆에서 누가 돌아가도 몰라요. 저들끼리 해가지고 선. 마을에서 하면 죄다 모이잖아요. 그냥 전체가 돌레가 다 모이는 거지.

(물이 안 들어오게 된 것은 아산만 방조제 생기고 나서 그렇게 된 건데)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한 해부터 6년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 하나도 없었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논으로 열두마지기 (2000평)을 누가 와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테니까. 그런거를 보고서는 아산만을 막으면 여기 지역이 잘 되겠다(생각했지). 시방 덕을 많이 보죠.

(예전에는) 바로 요 넘어가면 그냥 고기 투성이예요. 그래서 (형이) 배를 부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형이 해방이 되니까 기술도 있었지만 여기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저기(아산만)를 막고 보니까. 어민들이 인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어민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 농민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훨씬 저거(방조제)는 잘했다고 봐요. (농민과 어민의 갈등은)없죠. 일질. 그때 그 정치를 시방까지 했으면 벌써 통일 됐어요. 그 당시에 나는 고기는 난 못 잡았지. 형님이 잡고 우리는 농사짓고...

인제 통일벼 하나를 얘기를 좀 해야 하겠네. 어느날 갑자기 우리들이 청년회들

나갔는데, 통일벼라는게 나왔어. 당시는 못자리하는데다 통일벼를 던지는거야. 그 직원들이 나와서. 그래도 가만히 있는거여. 왜? 어떻게 됐든 보리밥 먹는 것보다는 통일쌀 그거를 먹으니까. 좋아서도 가만히 있고 싫어서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성공한거여. **통일벼를 좋아서라기보다 보리밥보다는 나오니까** 그런거고. 싫었던거는그 벼를 심었던 못자리를 다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구찮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통일벼가 일르니까(빨리 자라니까). 배면 없어지니까. 그 쌀 벼서 먹으니까. 싫어도 좋고.

형님은 배를 갖고 고기를 잡았었고. 나는 현재 계속 농사를 짓고 있고.

이 마을은 다 조상 대대로 지금 같이 그냥 여기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는거예요.

그 인제 내가 나이 30에 세상을 놔가지고서는. 시방 저길 보면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저 나무(있는데서 일하러 본가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일이 끝나고 관리도 다끝나. 딸 둘 낳아가지고선. 절루(사랑현) 이사를 갔는데. 마누라는 애를 놓고 나는 조금 큰애를 대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와서 밥 얻어먹고 저녁에는 가서 불 땄 게 있어야지. 그 어느 때는 천변에서 자고 그냥 저 나무라도 조금 갖다가. 큰 집에 인제 짊이 있으니까 짊나무 갖다가는 거여. 자식도 고생 많이 시켰어. 우리 큰 딸은 일곱살 먹으면

서 보리밥을 했어. 왜냐면은 나도 나가서 벌어야지. 지 엄마도 나가서 벌어야지. 지 동생하나 데리고 아침에 애가 보리쌀을 닦아놔. 물을 요만큼 부어놔. 그리고 곤로를 속으로 때는 거였어. 그다음에는 탄. 그다음에는 가스. 그리고 여기 6학년 졸업 맞고서 두 애들은 인천으로 보내고 삼남매를 전부다 인천으로 보냈지. 그것도 안보내야 하는 건데... 여기 6학년 담임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애들 둘은 보내야 될 텐데 여기서 배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내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보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인저 그 갠신히 방하나 얻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쌀 같은 거는 우리가 해다 줘야 돼. 자취를 하니까. 그걸 차가 있어야지. 안중까지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여. 그때는 경운기도 있고 마차가 있고 이래서 가지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평택 가서 수원 가는 거여. 그 수원가면은 처음에는 수원에서 저 논현동으로 가는 기찻길이 있었잖아.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거여. 그게 없으면은 안양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가는 거여. (하루 종일 걸리지)

우리 집은 땅도 없었어. 땅도 없어서 시작할 적에 400평가지고 나왔어. 400평.

유산을 못가지고 나오고 그때 우리 내외가 복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모든 것이 쌀이여. 그 땅금(값)이고 쌀금이고 쌀금. 땅금이 떨어져서 밑창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만 하면 먹고 살어.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송아지 한 필을 가마로 쳐서 샀어. 근데 그게 일년 반을 맥이고 파니까. 여기 땅으로 150평 땅, 반마지기 반을 샀어. 그러면 이제 400하고 그거하고 해서 1000평 되잖어. 하여튼 뭐만 하면은 되는 거여. 그리고 양잠이 생겨가지고서는 1년에 20가마 쌀로 20가마씩 버는 거여. 그러면 그거는 애들 가르칠 적에 써먹고. 또 그 집에서 짐승먹



신만철어르신이 보여준 사랑현

이고 뭐하고 한 거 가지고. 무조건 소한  
필 먹이면 땅 몇 마지기여. 그래가지고  
선 땅을 열댓 마지기를 샀어. 그때. 그거  
가지고 가르치다 가르치다 못해가지고  
이 열 마지기 팔아먹고 열 마지기 가지고  
선 지방 사는 건디. 우리 두 내외 살아 나  
가는데 갈라 써.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이대로 살자고 그래서 농산물 애들  
건 전부 그냥 지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나는 나대로. 어떻게 됐든 할테니께. 그  
래도 그때는 좋았어요.

지방은 암만 저기(노력)해도 땅 같은 건  
못 사잖어. 애들 가르치고 뭐하고. 여기  
는 이런 농협밖에는 없었는데. 은행도  
없고. 이게 돈 좀 (구)할라면 요만한 땅  
이라도 설정을 해야돼요. 그래야 돈을  
줘. 그러면 인제 그것도 없으니께. 남의  
집에 가서 쌀을 갖다가 쓰면은 달말, 연  
말 이자를 (줘야해)  
그때 애들 가르치고 큰애가 돈을 벌러

나갈 적에 그때 돈으로 천 만원이여. 대  
단한 거지. 1억도 넘는 돈이여. 지방은 1  
억이 얼마 안되지만... 근데 개가 처음 발  
령 받으면서 700만원을 줘더라고. 돈버  
는 교사들끼리 계를 들어가지고선 우선  
준거여. 빛 갚으라고. 그리고 2년(동안)  
에 1000만원을 다 갚고 남의 돈 하나 저  
기하지(빌리지)도 않고 했으니까 떳떳했  
고 만약에 자식 도와준다고 남의 돈 떳  
먹어봐 큰알나지.

그냥 급속도로 십년 안에 양잠하고 뭐하  
고 그 행랑을 지어가지고 양잠 누에 먹이  
는 집을 지었어.

인제 농사는 쪼그마니께.(양잠을 같이  
했지. 소도 키우고)

우리 어머니가 일흔다섯에 돌아가셨  
어. 그러니까 내가 삼십에. 그래서 저  
(동네)노인네들 지나가면 다 어머니 같  
어.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나홀로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  
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한 6년  
을 살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뭐  
기동력이라는게. 어머니가 그 병이 나가  
지고서 보리밭이라도 잡숫게 할라면 업  
어 가는겨. 그래 아버지도 인제 와서 좀  
계시라고 여름이면 애들 많이들 있지만  
와서 있으려면 자꾸 가는 거여. 그 아들  
며느리가 미안하니께. 이렇게 해서 아버  
지가 (내 나이)서른 여섯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지.



사랑헌에서 모금으로 구입한 소화전

(결혼은)스물 다섯에 (했는데) 미련한 놈이지. 그냥 땅도 한 마지기도 안 받고 나갔어. 내가 큰집에 땅을, 농사를 10년을 지어줬는데, 참 이 미련하게 살아서 시방 이렇게 괜찮은 가봐. 새 방 낼 때 큰형님이 안 챙겨줬어. 큰형이 모아 논거 위에도 있고 형수가 모아 논거 위에도 있는데 이걸 돌리는 거여. 애들 많으니까. 아니 내 자신이 철이 나니까. 애들도 이렇게 해서 철이 나니까. 우리는 땅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살겠지 했어. 그게 맞아 들어간 거여. 자식들이 잘 하니까. 맞아 들어간 거여. 그 자식들 공부안하고 그러면은 그냥 농사나 짓게 만드는건디

이웃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딸 자식들 공부 가르치느냐. 아들 자식들이나 가르치지.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둘째가 이화여대 들어갈 적에 아마 그때에 평택에서는 없었을 거여. 이대 들어간 애가. 그 때가 5.16나고서니까. 인천서 거 탕기다가 거기서 공부 해가지고 인하여고를 들어갔는데 4대 명문만 들어가면은 학자금을 전부 주겠다 그랬어. 그때, 연대, 서울, 이화, 고대. 그게 4대 명문이요. 이화여대 들어가서 전부 학자금을 줬고. 애들은 착했어요. 그래서 시방 인자 결산을 하고선 가만히 보니까, 땅 열 마지기를 팔아가지고선 딱 한 마지기씩 전부 (자식들) 대가리에다 넣어준 거여.

처음에서 좀 고생 많이 했죠. 그때는 일

을 하러 나가면 (하루 일당을) 20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하루에 만원어치를 먹어도 십 원 어치를 벌면 나갔어. 놀아서 뭐 할거여. 지금은 인제 (농사 일거리가) 없어져가지고... 아산만 막히니까 횃집이 생겨가지고 누가 (횃집을) 소개를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15년을 한 (횃)집에서 있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재(급의) 물건을 좀 몇 가지 놓쳤어요. 문화원이라는 걸 몰랐다고. 어떻게 황선생을 만나가지고서 뭐 저기가(문화원하고 연결) 됐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35년 된 이산가족도 찾아(주고), 또 해방되서 버린 가족들도 찾아줬어. 포스코 거기 회장이 고향을 몰랐어. 현덕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고향인줄) 몰랐어. 그것도 이제 2011년도에 찾아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동네 전부들을 모셔다가 참 저기(잔치)도 베풀고 그랬는데. 하나 크게 자랑할 것은 1963년도 9월 3일날. 에... 군수지. 그건 아마 처음일거여. 그 우리 나이에 최고 흥순항 군수로. 도지사상까지 다 받았어요. 이만하면 나도 인제 내놓지 뭐. 억울하고 그런 것은 없어.

우리들 애 적에는 여기가 인제 우리 집안이 (가구수가) 제일 많았고, 서씨네가 제일 많았어. 저 동네(의경제)가. (몇 집 안되도) 친가가 다 저 쪽에 모여 살았어. 지금은 변했다고는 보고... 변했다고 해서 크게 변한 것은 없어. 거의 빈집에 있

는 사람들이 종가집이야. 근데 종가집이 그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다 보니까, 자 손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노나 쥐야되고, 그리고 이게 돈 벌 때까지는 자식을 데리고 있다가 하다 못해 셋방살이라도 내보내 쥐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건 종가집만 망하는 거여. 그래서 인제 우리 집안들이 많이 나가서 사는 애들이 더 많지, 많은디 거의 요동네는 우리집안이 리드하고 있고 계속 이장이랑 뭐 말아서 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인물이 좀 나와야 돼.

작년에 동에 종회 있잖아요. 대동에 갈 적에 우리 산제 모신다는거. 젊은 층에서 그걸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 근데 일부 개들 보다 나이가 좀 나온 애들은 그래도 어른들이 했던 건데 **암만 구세대스러워도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뭐 폐지할거 있느냐.**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의형소방대에 소방펌프는 인제 그 5.16** 나고, 저 넘어서 불이 났어. 동네에서도 그걸 못 썼어.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재나게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불 나면 거기서 모이는 시간만 해도 다 탔다 이거여.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하나 장만하자. 그래가지고선 그전에는 그 우리가 농약(농촌모임)이 있었어요. 해방 되고 바로 그냥 장만했어. 인제 내가 상쇠를 해가지고선 **그때에 쌀 일곱가마를 모았어. 그렇게 해서 그걸 샀어.** 사구선 불이 났지 뭐 한군데가. 그래서 그거를 써먹었어.

**낙타표 재봉틀** 그거는 내 딸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고 재봉틀 가지고 가서 해라 하고 장인어른신이 시집올 때 해주신 것 여. 5.16혁명이 나고 그전에는 장롱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너무 못 살으니까, 시방 반다지라고 봐야지. 나는 어디서든 보면 저거는 써먹는다 하고 갖다가 왔어.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기성복 그냥 막 사입으니까 (재봉틀이) 필요 없잖아. 인제 어디로 이사 가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여. 그거를 문화원이니까 가져갔지.

풀섬 할 때, 손으로 전부 하는 건데 그건 힘이 들으니까 거기다 돌리면 까지는 것도 시방 있어. 근데 조금 파괴가 됐지. 누에고치 까는 거라고 거기다 넣고 돌리면 숨, 그 밑창에서 숨이 땀기면서 그놈



이 까. 예전에는 손으로 뽑았는데 이걸. 그런데 그만(기계만큼) 못 빨아들여. 그 전에 우리가 양잠할 적에 그전엔 전부 잦아. 풀섬이라고 그걸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전에 시방 소독 솜을 쓰잖아. 그전엔 그거를 썼어(풀섬). 입마개도 하고...(엄할 때)

94년도 이장을 보면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학생 일곱 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

강 오막살인데 그때도 보리밥. 그래도 밥을 해서 점심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더니 도면을 이렇게 갖다놓고서는 기와집이, 외정 때 집지는 집이 여기 있어 하나. 집이 저기에(아직도). 잘 지었지. 그래서 여기 기와집이 몇 있고 초가집이 몇이 있고 또 지붕 개량 했으니깐, 지붕개량이 몇이고 이거를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또 동네가 몇 명이 되고 시방 같이. 그래서 동묵, 신황, 대현리 이 상계리를 돌아 땡긴다고 그러. 근데 그때는 전부 초가집이고 지붕개량 한 거 스라브 지은 거 드문드문 있을게 알지. 누구네 누구네는 스라브 누구네는 슬레이트 입힌 거고. 나머지는 전부 초가집이다 해서 다 보내 줬어. 근데 여기서 저 산이 망원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긴 **마안산**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그게 시방도 궁금해요. (지도에) 구진포라는 거. 여기 **광덕면**이라는 거 다 있고, **진위면**이라고 돼있었어.

나의 인생은 5.16혁명이 나가지고서 이



**1919년 5만분의 1 아산지도**

대정 3년(1914년) 측도하여 대정8년(1919년) 인쇄한 축적 5만분의 1의 아산(牙山)지도이다. 지도에는 경기도 진위군, 충청남도 아산군과 당진군이 포함되어있다. 평택호방조제가 막기 전 안성천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만철 어른신이 거주하고 있는 현덕면 대안리(大安里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안리 남쪽방향으로는 구진포(鷗津浦)와 맞닿아 있다.

현덕에서는 어떻게 나를 불렀는지는 몰라도 청년부 자리로 불려가지고, 진작에 그 현덕에 일을 좀 해달라고(해서) 참 열심히 했어요. 저 개화기에 내가 내 인생 하나 인제 바친거니께 끝까지 한번 해보자구서는. 시방까지 2001년도에 내가 노인 회장을 보면서 시방까지(하고 있는데) 나이도 나이니까. 올해 다 벗어놓고 내년엔 내 인생 나도 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요.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평택사이버고향전시관, 평택문화원  
장소협력 | 대안2리 노인회관



노광풍

노광풍 77세, 서정동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 하우스보이에서 예산담당자로 퇴직하기까지 미공군 비행장이 부른 서정동의 삶. 고단한 삶의 질곡을 긍정의 힘으로 살아냈고, 서정동 황해도마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인데,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내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도병이지. 전투에 참가를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농도섬에서, 속도섬에서, 또 초도, 백령도 거쳐가지고 항구마다 큰 배로 내려왔어요. 저는 군산에 내려왔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아닙니까?

사실 이승만대통령님이 우리 피난민을 굶기지 않으려고 미국에서 들여온 수입된 안락미 쌀이라고 있어요. 그걸 계속 배급을 줬어요. 군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군산에서 이승만 대통령 정책이 전라북도 전 지역을 통해서 다섯 가구씩 한동네로 분배를 해줬어요. 얼마나 똑똑하게 행정을 하나 하면은 다섯 가구씩 동네로 주니까, 동네에서 처음에는 각 동마다 모정이라고 쉬는데가 있잖아요. 일하러 갈 적에 들르고 들어올 때 들르고 거기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 안락미쌀을 배급을 줬어요. 그거 먹고 살은 거예요.

군산에서 김제군 백군면으로. 아까 말한 대로 다섯 가구씩 백군면으로 가서 있다가 이리(평택) 온 거예요. 그때 나는 남에 집 머슴을 살았는데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평택에 가면 취직될 수 있으니까(가자고 해서).

보통 머슴을 살면 세경을 받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장정들은 쌀을 12가마 주면 우리는 6가마를 줘요. 안락미쌀을 배급 주는 바람에 내가 세경 받는 거에 보태가지고 우리 6식구, 어머니, 우리 누님, 동생들 다 먹고 살았어요. 나는 김제 백구면에 배속이 되가지고 거기서 (배급받아서 살다가) 소문 듣고 평택으로 온 거예요. 미군부대 여기 올라오면 취직될 수 있다 해서.

저희동네가 바로 옹도라고 공명섬이라고 있는데 그게 쌀물이 되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물 들어오면 배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사실 공명섬이 우리 피난민들을 많이 먹여 살렸어요. 거기 없으면 피난 올 데가 없어. 거기 (공명섬) 들어와서 조금 더 깊은데 속도, 조금 더 안전한데 백령도, 그다음 또 초도, 결국 그렇게 거쳐가지고 이남으로 나온 거죠. 일사후퇴 때 51년도.

원래 고향은 황해도 은율군 서부면 양

정리. 거기가 바로 공명성 앞이에요.

공명섬이 많은 피난민들을, 우리 은울 군에서 온 사람들을 섬으로 피난했다가 속도로 들어갔다. 초도로 갔다가, 백령도로 갔다가, 남한으로 왔는데, 속도까지는 우리 나룻배. 초도에서 백령도까지는 LSD, 백령도에서 LSD 타고 아까 말한 대로 항구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송탄에 은울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금산포 쪽 1도, 2도, 금사포, 그러니까 세 군데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풍천 사람들.

그분들이 다 군산 갔다가 여기 미군 비행장 생기고 일자리 있다고 하니까 이리 온 거지. 그래서 **여기가 황해도 촌이 된 거죠.**

평택에서 여기 황해도 사람이 많이 살게 된 이유가 미군기지 일자리 때문에 이리 다 모인거지. 미군부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라오니까 맨 처음에는 막막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산다는 게 막막하지 뭐. 20살도 안됐을 때 여기서 살아가지고 미군부대 노무자부터 시작을 했지. 처음 이쪽으로 넘어 왔을 때는 집이 집이 아니고, 땅을 파서 그 위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기름 보루꾸라고 있어, 그거는 비도 가리고, 아주 든든해. 시레이션 박스, 기름 보루꾸를 그 위에 두르고 땅을 파고, 그러니까 땅집이지. 하꼬방이라고 하는 땅집. 그러니 집이 집이 아니지.

옛날 언백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지으셔서, 내가 땅을 기억하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농사를 짓더라고. 어렵진 않았지. **평생 제일 힘들었던 게 머슴 살적이야.** 그때가 16살, 17살. 여기 (평택)는 20살 넘어서 왔을 거야. 스무살, 열아홉... 1년 넘게 머슴을 살았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지만, 군산에서 올라오려니까 세경은 다 받아먹었는데, 6가마. 돈 (달러)줄게 없잖아. 그래서 주인아줌마한테 제가 드릴 돈이 없는데 제가 대신 틀림없이 갚겠다. 돈 벌어서.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분인데, '광풍아, 너는 믿어. 넌 어디가도 아무걱정하지 말고 가. 돈, 이다음에 벌어도 안 갚아도 돼.'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못 가게 할 줄 알았어요. 간다고 할 때 어딜 가냐, 돈 내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1963.4년 스물셋 정도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찾아 갔어요.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내려가



오산리 공군기지



오산리 시장

서 '아줌마,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지금도 생각나요. 어떻게 사시나 생각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돈을 갚으려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집에다가 던져놓고 왔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예요. 전라도 살적에 내가 항상 이런 맘을 먹고 있어요. 만약에 전라도 사람들이 황해도로 피난 왔으면 우리가 전라도 사람같이 했겠느냐, 정말 잘했어요. 피난민들한테... 그 동네로 다섯 가구가 갔는데, 우선 일을 시키면서 먹을 거 주고 밥 남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정으로 밥 다 퍼다 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 황해도로 피난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겠느냐. 못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개개인이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용한 사람들이예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피난민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항상 고마움을

느껴요.

군산에서 제가 먼저 와가지고 자리 잡고 어머니, 동생들, 누님 와서 여기 사거리에서 살았죠.

집 장만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네 땅인지도 몰라. 땅임자도 내 땅인데 뭘 짓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파고, 파내고, 구들장 놓는 것도 아니고. 청소부에서 나오는 기름 보루꾸 없어 가지고 비, 눈 가리고 거기 사는 거예요. 나도 남의 집 옆에다가 파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았던 거지. 가족들 불렀을 때, 맨 처음엔 확장 못하고 나중에 조금 파가지고, 가족들 같이(살았는데) 뭐 말이 아니지.

지금 목욕탕 바로 앞에, 거기 신창동 쪽(에 처음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저쪽 정문으로 가려면 한쪽으로 공동묘지를 지나 가야하는데 그 공동묘지가 그렇게 무서웠어. 그때 생각하면 정말...미군기가 없었더라면 물론 사람들 모이지도 않았겠지만, 그모인 사람들이 미군부대를 위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집도 하나씩 짓고, 또 정문 앞에 상점이 하나둘씩 생기고, 하여튼 미군부대가 이 송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평택시하고 송탄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송탄이 미군부대 때문에 번창한 거예요. 미군부대 아니면 어디 먹고 살 근거가 없어. 내가 다닐 때만 하

더라도 우리 종업원이 미군부대 3,8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0명밖에 안 돼. 좋았지.

미군부대에서 황해도 사람끼리. 밖에서는 황해도민회가 형성됐고, 지금도 우리 황해도민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나 이 들어서 많이 돌아가셔서 그때 우리도 민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60명씩 모이고 했는데 작아서 어디 식당에 갈 때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와야 16명. 황해도 사람끼리 융합이 잘돼가지고 하일봉씨 나 우리 기억에 남는 분들이 강대철. 강만철씨랑 특히, 고려대학교 축구선수로 그분이 클럽을 운영했는데, 그분이 우리도민들을 많이 육성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거진 그분이 다 냐어. 스폰서하고. 대신 미군들을 위한 클럽을 했는데. 파이프 스왓이라고. 잘됐어요.

강만철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송탄미군부대 쪽에서 인텔리하고 황해도 분들이 자리 잡고 먹고 살게 돕는 최대 후원자였죠. 우리 도민으로써는 잊을 수 없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기 올 때 처음엔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생각이 안나. 전부다 고향분들이예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예요. 친구들한테 연락 와서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오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모이게 된 장소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하는데 있는데 거기에 미국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청소부로 나와. 그럼 **꿀꿀이죽을 우리가 먹고 산거예요.** 미군들이 먹고서, 물론 먹다가 버린 것도 있겠지만 남은 거 가져다가... 그게 또 구름같이 모여 들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

사거리 이쪽에 청소부가 있었는데. 목창동에, 거기서 많이들 배고픈 사람들 먹여 살렸어요. 미군부대에서 나온 짬밥을 물타서 끓였어요. 그걸 사다 먹었어요. 미군들 버린 음식 갖고 꿀꿀이죽 먹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때는 고기가 많았어요. 그나마 우리는 고깃국을 먹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먹다가 하나둘씩 취직이 되니까, 땅굴도 파서 살고, 자급자족이 되잖아 버니까, 거기서 짬밥 먹지 않아도(되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 보면 참들 용했어요. 나도 참 그 대열에 끼여가지고, 황해도 도민 회장도 하고, 5도 연합회장도 하고, 도민들을 위해 많이 봉사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부대도 예산편성관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금을 다루니 꾀밭이 있다랄까? 우리 황해도 분들 많이 취직도 시키고, 특히 시설대가 제일 한국 종업원이 많잖아요. 자 리 나면 무조건 우리 황해도 사람들 우



미군이 기록한 '하우스보이와 나'

선순위로... 재미났어요. 재미나게 미군 부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한 거 같아.

퇴근해서 야간학교를 다녔으니까. 송광고등공민학교가 저한테는 고마운 거죠.

제가 야간 학교를 다녔거든요. 퇴근해가지고 야간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태광학교예요.

태광중고등학교 전신이 송광 고등공민학교 2회. 영어를 부지런히 배웠어요.

영어시험을 봐서 제가 100점 안 맞으면 선생님이 "광풍아, 너 이거 왜 틀렸어?"

그럼 하나 틀렸어요. 그것도 해석을 여자를 남자로 해석을 했어. 퇴근해서 야간학교를 다녔으니까. 송광고등공민학교가 저한테는 고마운 거죠. 야간이 없

었으면 이거 공부를 어디서 해. 열아홉부터 스물두 살 그 사이. 강래원씨가 있고, 김두만씨도 있고, 김용헌(전 경기도

의회도의원), 황득규(전 태광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때 같이 했고, 많이들 (학교에)갔어요.

53년도는 적봉리에 미군부대 정문이 있었고, 지금 정문도 있었고. 언제 여기가 폐쇄됐는지는 모르지만, 적봉리 게이트가 하여튼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로 출퇴근을 했다고. 한국 사람들은,

(종업원은, 부대 내에서) 주로 막일. 목수나 페인트 여기서부터 하여튼 길 보수하는 사람들부터 잡일서부터 엔지니어, 기술자들까지. 예를 들어 우리 시설대가 목수, 전기숍, 페인트숍, 플랜트숍,

집에 뛰하는 거는 다 우리 시설대에서 전화 받으면 가서 다 고쳐 주는 거야.

처음에는 하우스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두닦이. 내가 그만둘 때는 부대 예산 편성해서 집행. 말하자면 재무부장관,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피나는 노력. 하우스 보이부터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최고의 직책, KGS eleven 이라고 하면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가서 참 영광스럽게. 42년 6개월이라는 경력이 63년부터 2005년까지 다녔으니까. 마지막에 예산편성관으로 제대할 때까지 42년 동안 계속 미군부대 다녔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금을 대한 브리핑을 해요. 사단장을 모시고, 사단장은 테이블의 가운데에 앉고 옆으로 예하부대 사령관이 다 모여, 그럼 대령이 열댓명 되고 중령이 열댓 명이 되고, 큰방에 모여서, '펀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자금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현 자금에 대한 걸 브리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몇 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령관은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해줘야하고 예하부대 사령관도 자기네가 배당받은 자금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내가 보충 설명도 해야 하고.

그 좌석에서 우리 사단장이 "닥터 노가 오늘부로 11급으로 합격돼서 프로모션됐다. 여러분들 다 같이 축하해 줘라"고 박수 칠 때 내가 지금까지 영어 배우는

라고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람이... 미군부대에서 계급이 있잖아요. 7급, 9급, 11급. 영어를 시험 봐서 합격되면 올라가요. 그게 미달하면 못 올라가. 11급 올라갈 적에 시험에 합격돼서 높은 사람한테 축하받을 적에, 높은 사람들이라는 게 시설대장, 사단장, '윙커맨더'라고 우리시설대장은 대령이고, '베이스커맨더'도 대령, '윙커맨더' 사단장은 별 하나짜리야. 그분의 축하받으면서.

내가 63년 11월부터 2005년 3월 달에 제대했다고 42년 동안 다닌 거예요. 진급한 거는 90년도 일거예요. 구두 댕을 때는 개인의 종업원이야. 4급부터 타자기부터, 5급, 7급, 9급, 11급. 그게 한 40년. 마지막에 42년 기간 중 10년 동안 11급으로 근무하다 나온 거 같아.

7급 때는 미군 밑에 있다가 버젓오피스에 9급까지 미군 밑에 있다가 11급 되면서 우리 예산과에 책임자로 한국사람 6명을 데리고, 유난히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고 마음대로 내가 한 게 11급 된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 자리 나면 채용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황해도 2세대 다 다니고 있어. 신이 도왔지 뭐.

(자주 가는 식당은) 선창옥도 있었고, 부흥식당도 있었고, 대흥여관 아줌마가 식당할 때 손이 커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들한테 배불리 먹으라고 퍼주고... 옛날에 우리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사거리도 황해도 사람들이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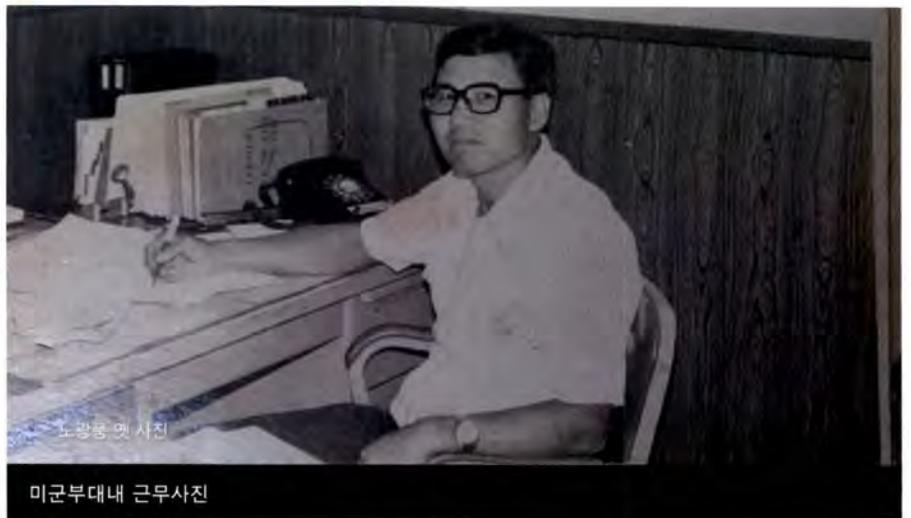
아하는 음식점도 있었어요.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먹던 것들이 있었는데 식당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여러 가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던 집들이 자연스럽게 소모됐어. 소모 되어서 어느 식당을 가도 주문하면 다 나오니까, 식당도 많이 변했어요. 여기 사거리가 식당이 지금은 몇 개 없는데 예전엔 아주 많았어요.

북창동에 참새집이라고 있어. 지금도 도민회 가면 참새 해.

송탄지서 지나서 대여섯 집 지나면 참새 집이라고 있어. 참새집이 예전에 유행했었거든요.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정태호씨나 가끔 참새 오더(주문)하면 구워와, 황해도에서 먹던 거 콩비지 같은 거 좋아하고.

또 황해도 만두는 김치 만두로 커요. 세개면 한 그릇돼. 두덩어리 먹으면 웬만한 여자분들은 못 먹어요. 우리는 그걸 네덩이 다섯 덩이 먹고, 배고플 때니까.



노광용 옛 사진  
미군부대내 근무사진



최치선

최치선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항토사연구소 상임위원

노광풍어르신이 당사자로서의 경험이라면 최치선 상임위원은 어렸을 때의 시선으로 그 당시를 회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뀐 상황에서 바라보는 미군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인터뷰 말미에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실는다.

명절 되면 저희는 김치밥도 가끔 해먹어요. 김치밥 못 드셔보셨죠? 황해도에 별미가 김치밥이에요. 김치를 바닥에 깔고,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돼지비계를 넣고 밥을 하고, 우리는 미군기지 주변에 살았었기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나는 빠다, 빼깡기름이라고 하나, 빠다는 고급이고, 빼깡기름이라고 식당에서 튀김하고 남은 기름. 그 찌꺼기를 받아다가 덴뿌라 가게에선 덴뿌라를 튀기고, 일반 집에서는 그걸로 음식 조미료로 쓴 거예요. 김치밥 할 때 그걸 넣으면 밥이 맨질맨질해요. 무지 고소하고, 구수하고, 우리 집사람 시집와가지고 그걸 배워서, 요즘 제가 겨울만 되면 김치밥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후문 적봉리로 출퇴근할 때에 사람들도 많이 들끓었고 제일 왕성하게 들끓은데가 여기예요. 송탄에서, 초창기에 정문에는 지금처럼 변화한 상점도 없었고, 자연히 황해도 음식이라는 게 자연히 소모되고 특별히 뭐 하는 집이 없어졌어요.

막걸리집이 잘 됐어. 몇 군데 있었어. 진평상회도 있고, 탄 데로 흡수 당해버렸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진평상회하고 평안상회는 사거리에서 제일 오래된 집이고, 지금은 진평상회도 안하고 평안상회도 안하고, 막걸리 집은 지금 하나있어. 그 순댓국집. 순댓국집 자리에서 예전에 약국 했었는데.

최치선 여기 이 동네가 황해도 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황해도 우리 아버님도 이북서는 과수원 했잖아요. 브루주아였지. 근데 저희는 군산으로 갔다가 해운대에서 저를 낚고 묵호 가서 오징어 너는 일하시다가 외가 집이 여기다가 자리 잡고 그러니까 회장님네 근처에 저희 외가가 자리 잡은 거예요. 저희는 제가 다섯 살 때 이사했는데, 68년도에, 저도 신창동 하꼬방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노무자로 일하다가 저희 아버지도 CS 들어가신 거 아니예요.

(당시)회장님은 황해도 사람들의 생명줄이셨어. 중간 중간에 감원이 있었어. 그러면 아버지는 술은 못하시니까 노루모를 그렇게 드셨어. 미군들에게 당하는 수모나 한국인들 간의 완력이나 해고시킬 때 거기 안 들어가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퇴직하시기전에 퇴직하고도 계약직으로 일하셨잖아요. 근데 언젠가 회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은 아까 왜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암만 과거에 고생하고 지금 먹고 살만하고 하셨어도,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도 과시나 과거의 아픔을 확대하는 게 없이 담담하시네요. 내공이 높으셔요.

노광풍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면 사무용품, 노트부터 연필, 충 분하니까 잘사는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가 없는 게 없 이다 있잖아. 식당부터해서 뭐뭐, 서플 라이도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 니까 부강한 나라라는 생각은, 우리하 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이 있죠. 개들이 물건이 부족함 없이, 특 히 공군이 평택의 조건하고 또 달라요. 개개인이 지원병들이고, 하이클래스라 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무 시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근무했어요.

최치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 커피, 커피 문화가 송탄은 발달을 했어요. 다른데 가면 보리차 주던 시절에 우리는 카네이션표 프림, 프림을 카네이션이라 고 했잖아요. 커피 타먹었잖아요. 우리, 송탄서는 프림 넣어서 커피문화가 자동 적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 이 흔하다보니까 미군아이들도 친한 애 들은 집으로 초대하면 선물 들고 나오잖 아요. 양주 들고 나오고, 양담배... 정문 앞쪽은 여기하고 또 달라요. 우리 동네 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빠꾸기 우는 동네 예요.

샌드위치, 우리어머니가 언제부터 아버 지가 원하시니까 샌드위치를 만드시더 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남자 둘 이 맥도날드 가서 버거를 먹었어요.

회장님은 입맛 안 바뀌셨어요?

노광풍 아무래도 개들(미군들)이랑 같 이 있다 보니 많이 먹게 되잖아. 우리하 고는 다르니까. 조금 바뀌기는 하더라도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고. 부대찌개는 우리 일반 집에서는 꿀꿀이죽 외에는 부 대찌개를 따로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소세지 나오면 삶아서 어찌다 먹고 부대 찌개는 나중에 최네집 거기 아줌마가 나 중에 생긴 거예요.

의정부, 용산 어디가 원조라는데 어디 가 원조인지는 몰라. 워낙 비슷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소세지에, 우리나라 사 람들 무조건 김치에다 뭐 넣잖아요. 김 치에다가 소세지 잘라 넣고 치즈 넣고 햄 넣고 그렇게들 끓여 먹었어요.

미군부대 안에서도 CS안에 한국인들 일 하는데 자기네들 점심때는 찌개 끓여 먹 었다면서요. 거기서 햄 썰어놓고 드셨대 요. 부대찌개를 장사로 시작한건 의정부 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음식 해먹은 데는 이 동네가 처음일거예요.

최치선 미군비행장이 52년도 10월 달에 공식 출범하면서 정문이 여기, 메인 게이트가 이쪽이었거든요. 그게 3년 정도 유지 됐을 거 예요. 자료를 보면 저쪽 신 장동 쪽으로 메인게이트가 옮겨가면서 올라가는 여기가 통신부대쪽에 후문이 생겼지. 그리고 저길 폐쇄를 했어. 저쪽 을 폐쇄하면서 저쪽 상권이 옮겨가고 여 기는 사람들만의 쉼터가 됐는데 여기가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건 고덕 쪽으로 나가는 통로였어요. 사거리라는 말이 네거리잖아요.

여기서 미군부대도 가고 서정리도 가고, 고덕도 가고, 사통발달의 동네였던 거죠. 50년대에는. 그 옛날에는 이 지역 자체가 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잠깐이라도.

이쪽이 중앙상권이 발달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저 언덕에 사거리 노인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사거리도 한문으로 만든 거죠. 클트자 써 가지고, 그냥 사거리거든요. 네거리. 그걸 어르신들이 이미지 상으로 크다고 붙이신거예요.

거기 신흥교회가 피난민들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52년도에 창립됐어요. 그게 적봉리에 움막으로 시작해서 52년 9월 1일에 창립을 했어요. 황해도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실향을 달랬죠.

이사하자마자 우린 바로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북에서 다 크리스찬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나갔고 거기서 사거리 사람, 신창동 사람들이 다 만나는 접점이었죠. 교회가 언덕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는 노무자들, 미군부대 막일꾼으로 시작한 분들이 정착한 동네예요. 그리고 저쪽 정문 앞은 메인 게이트가 생기면서 기지촌으로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토속적이고 드라이했던 동네야. 그리고 황해도 사람들의 인척관계, 사돈에 8촌까지도 친척처럼 지냈으니까. 피난 나와서.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의 유일한 화두는 미군부대 가서 봉급 많이 받는 거였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은 엄청 강했고.

최치선 좀 전에 말씀하신 하일봉씨는 작고하셨는데 그분은 행정 필력이 좋으셔서 황해도민이 여기 왔을 때 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예요.

노광풍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이 다했어. 그분한테 찾아가면, 말하자면 우리 도민의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광풍 미군부대 다니면서 미군과의 트러블은 잘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사람들이 모든 일처리를 공정하게 본다고 봐.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경기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관리하는데 윗사람들의 매너가 억압을 준다던가 하는 일 없이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물어보고, 간혹 한국 사람이라고 하대하는 건 있어도, 내 심적으로...

최치선 미군부대 접근하는 개념이 반미의 개념에서 들어가면 전부 깔 거 투성인

데 생활사 측면에서 들어가면 우리 송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얻은 문화 예술적인 혜택은 문화, 예술, 정서, 사회 봉사 쪽에는 여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에서 과거에 자선 봉사단체가 제일 많고, 지금도 적십자 봉사회나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가 여기 송탄이예요. 라이언스 로터리, 적십자 봉사회도 기본이고, 그 외에 자생적인 단체들, 그런 거 사진, 볼링, 테니스, 문화예술, 체육 쪽이 가장 먼저 처음부터 앞서갔던 게 미군들한테 받은 영향 때문에...

전국8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형성된 동네고, 평택 속의 송탄은..., 그러니까 안정리랑 또 달라요. 그래서 비굴할 정도로 미군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게 88올림픽 이후예요. 외지에서 많이, 용산 미 8군 기지가 많이 약화되면서 용산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자존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출입정지 당하고... 그러면 내 목소리를 내고하는 거죠. 미군을 상대로, 또 우리도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그 것처럼 무조건 미군들 어서옵쇼가 아니라, 사기 싫으면 말아, 이런 식의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군기지에 근무하던 분들도 회장님 세대에서 많이 바뀐 거죠. 최소한 대학 나온 애들 많이 있고.

노광풍 이 자리에 집 짓고 온 게 오래됐



지. 23~24년? 그동안에는 저기(신창동, 사가리)도 살고, 마끔리(막금리)에도 살고, 특히 후회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남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들 한 거만 생각나요. 아쉬운 거 별로 없고, 송탄에서 추억에 남는 거라면 사실 고마운 게 우리황해도 분들이 여기서 많이 정착을 해서 남들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만철씨나 하일봉씨 같은 분들이 많이 도민들을 이끌어주고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서 제 자신이 특별히 송탄에 대한 느낌이나 특별한 건 없어요.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오산에어베이스공보실,  
평택사이버고향전시관, 평택문화원  
장소협력 | 노광풍씨 자택



안희환

안희환 | 74세, 원평동

개성에서 피난 나와 결혼과 함께 마산에서의 신혼을 시작했으나 남편의 사망으로 평택으로 이주했다. 안정리에서 미군 부대 일을 하며 터를 잡았고 병고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살아내기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지금은 멋진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아빠(남편)가 돌아가시면서 75년도에 이리(평택)로 왔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이틀 만에 가시고 나니까 살길이 없어서, 여기 오면 시누이가 있어서 빨래라도 해가면서 애들 먹여살려야하지 않냐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개성서 피난 나와서 돌아다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마산 가서 살았지. 시누이가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같이 어떻게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의지할 때는 시누이 밖에 없는데, (시누이랑은 원래 사이가 안좋아도) 내가 기대고 "시누님, 시누님" 하는데 미워하지는 않잖아. 미움은 안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시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도 의지를 많이 했지. 근데 두 분다 돌아가셨어. 시누이랑 (시누이)남편이랑.

개성에서 피난 나와서 스무 살에 결혼해서 마산가서 살았지

마산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지만, **신혼은 어렵פות한거지. 아련하고.**

그때 추억은... 행복은 지나고서 알게 되듯이... 그때 마산 참 살기 좋았어요. 아빠가 독신(외동)이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신은 나를 만난게 굉장히 행복하대. 늦게 결혼했거든요. 서른이고 난 스물이고.

거기서 아빠(남편)가 군인이었어요.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서 4년 살고 올라왔지.

군대에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높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그랬대. 자기는 이렇게 혼자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결혼해서 실패하는 건 싫다 그러다 저를 만났는데 늘 그 얘기더라고. 근데 뗏거리가 없다고 바가지 긁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부부간에 "미안해", "당신 고마워" 이 소리를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빠가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잖아. 당신 편하고 나만 고생 시키는 거 아니잖아.

동네에서 무 심어놓으면 팔 때 뽑으러가, 그럼 가서 내가 기운이 있으니까 뽑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해서 애들 먹이고 담요 덮어서 한 그릇 담아 놓은 게 눈물나게 고맙더라고.

아빠가 할일이 아닌데 이걸 해야 하나 싶

어가지고, 내가 빨리 애들 키워놓고 직장이라도 다녀야한다 내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야지... 그러면, 여자가 뭘 벌겠느냐고...

이럴 때 굉장히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맙고 미안했죠. 그게 그순간에 행복했던 거 같아요. 군대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사회경험이 없어. 돈 있으면 딱 쓰기 알맞아. 누가 또 하재, 사업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퇴직금 다 날리고. 직산이 (남편)고향이니까 농사짓는다고 들어갔다가 11년 살고 제가 서른세 살 한창때...

나는 나이 많아야 죽는 줄 알았어. 젊은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젊은 사람도 가는구나. 그래서 나도 도저히 살길이 없어 죽어야겠다고 집 문턱에 서서 뒤로 넘어졌는데 안 죽더라구요. 여기(뒤통수)만 깨졌는지 어쨌는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숙모님이 물 떠다 먹이고 그러면서 깨어났어. 그랬는데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죽는 것도 팔자가 아닌 거 같았어요.

일단은 애들 굶기는 게 가장 힘들었어. 굶기지 않아야한다고. 오늘 일을 안 하면 쌀을 못사니까, 어디서 도움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지. 친척들도 없고 아빠가 독신(외동)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고

아원 보내야 돼. 살자니 정말 보리밥이라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3년 동안 10시, 11시 들어오고 나면 애들이 자. 자면 눈물뿐이 안나오더라구요.

아이들 키울 때는 그때는 돈벌기도(어려웠지). 직장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여자가 기껏해야 가서 일을 하면 빨래고. 그래서 누가 소개해서 미군부대 들어가서 8년 다녔죠. 처음엔 들어가자마자 미군들 빨래 해주는 거. 그다음에 청소해주는 데는 보너스. 퇴직금 같은 게 있더라구.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8년 하고. 신탁의 이사장님이 청소하는 사무실에 이사장님이시더라구. 평택신탁에요. 아줌마는 내가 이사장되면 나와서 나랑 신탁 일을 해야 한데. 그래서 나와서 홍보위원으로 4년 일을 했지.

수없이 이것저것 했어요. 생활이 안되니까 직업을 계속 바꾸게 되더라고. 여자들은 돈을 많이 안주잖아요. 많이 해야 5~60만원, 100만원 그러는데, 그거가지고 알뜰히 살려는데 돈이 안 모이지더라고.

그때 받은 첫 월급이 미군부대 다닐 때 20만원.

20만원이면 납작 보리쌀 같은 경우엔 한가마에 5~6만원 하니까. 그리고 연탄하고, 모자라는 건 외상하고. 다음 달 월급타면 갚고. 이런 식으로.

겨울나기 힘들어도, 부뚜막에 앉아서 된장찌개 놓고 먹을 때가 굉장히 그리워



뒤에 보이는 집이 안정리로 이사온 집이다

요. 맛도 있고, 애들한테 어릴 때 자장면 사 준거는 한 번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같아.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좀 더 애들한테 잘해줬지

2000년도에는 여기 원평동에 조금 살았어. 보상받기 전에.

아파트 간 게 2003년이었으니까 2000년에 나갔어요. 이사 가면서 (미군부대는) 관됐지.

신협 일을 하다가 식당 조금 하다가, 간병인을 조금 하다가, 하여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자꾸 바꾸게 됐어요. 쉬는 날은 없이 자꾸 바꾸게 되더라고. 간병인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하고 그래서 재가로 다녔어요. 1년 반 정도 하고 보험회사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됐어요. 이젠 바꾸지도 못해.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거 같아요.

여기서 살면서 기억에 남는 건, 추억이 라기보다 변한 거. 75년도 여기 왔을 때

미군이 엄청 많았지. 우리 민간인보다 미군들이 훨씬 많았어. 미군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때 장사가 참 잘됐어요. 애들이 커가는데 보니까 국제결혼 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딸은 국제결혼 시키는 건 안 될 거 같더라구. 그래서 서울로 내보내서 오빠네 집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데, (큰딸은)돈버는 데는 신경을 안 쓴 거 같아.

봉사하는 데는 앞에 나가서 했더라도 돈 버는 데는 할 게 없더라구요.

몸소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 가게를 하자니 밀천이 있어야 뭐를 하고.

그러니까 일수를 얻어서 참기름을 직접 짜다가 팔아 봤어.

일수도 없어지는데 그것도 안되더라구.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것만 하다보니까 먹고 여유 돈이 안생기더라구. 저금이 안되더라구.

그래서 큰애 결혼 하는데 돈백만원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한대. 근데 일찍 결혼하겠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외상으로 했어. 반지하나 해주는 것도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신용을 잘 지켰거든. 그래서 뭐든지 오늘 내가 1,000원 어치 외상을 가지고 오면 내일 갖다 준다하고 딱 갖다 주고. 그래서 평택서는 오히려 외상을 잘 주더라고. 그래서 평택서 쌀을 갖다

먹었어요.

하루하루 가서 일하고, 오늘 쌀을 사놔야한다. 뭘 사놔야한다. 뭘 이런 거만 생각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가게 됐어요. 아닌게 아니라 자본금이 있어야 될 하고 싶고, 하게 되는데, 영안 되더라고요.

신협하면서 신협에서 4년 있는 동안에 거기 4층에 나를 이사장이 일을 시켜가지고 “조합원들을 활성화 시켜야하는데, 아줌마가 아줌마들 위주로 된 조합원을 만들어야 돼. 활성화가 빨리되면” 그래서 아줌마들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안정리를 조합원으로 다 만들자 그래서 나를 이사를 시켰어. 그래서 여기를 그때 나가게 된거지.

하루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천 원 이라도 출자(해달라고)… (천원)주기는 쉽잖아. 천원 가지고 저축하러 가기는 힘들어도, 출장은행이지. 돈도 찾아도 주고 저금도 갖다 주고, 은행가서 공과금도 내주고, 그런 역할을 다 한거지. 4년 했어요.

(4년 동안 했으니 발이 안 넓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야한다(는거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행동거지를 잘 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된 건)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출금 부탁하는)전화가 사무실로 오면 찾아서 천 만원, 이천만원(이

든) 딱 (가져다)주고, 또 받아다 예금도 해주고.

근데 어디서 많이들 했느냐면, 평택역 뒤에 색시들 장사하는데 거기 한사람을 누가 소개해줘서 하는데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이 나왔어. 하루에 천만 원이천만 원도 줘.

갖다가 예금했다가 또 필요하다면 찾아다 주고, 은행으로 사람들은 안오는거지.

내가 다 갖다 주기 때문에.

그때가 89년도인가, 88년도…

나 알던 사람은 다른 데로 이사 갔어. 지금도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

평택이고 안정이고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발로 다녔지. 걸어 다니고, 버스타고 지금 생각하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생활에 보탬이 되고 봉사 하는데도… 요즘은 회사 같은 것도 많고 식당도 백 만원 더 주잖아요. 그때는 식당도 조금밖에 안줬어. 한 6~70만원 밖에 안줬어. 그러다보니 이렇게 그냥 뚜렷하게 한 가지 한 게 아니고 그냥 만인의 여인이 됐어.

그때는 중매를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우리 딸 결혼 좀 시켜줘.”

어찌구 막 그러드라구. 그래서 지금까지 20명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복집에, 이불집에, 이런집에 데려다가 다 소개해주고... 하다보니 까다 외상으로(먹을 것들을 주더라구)

'내가 소개를 시켰으면 소개비를 100만원 줄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주면 실망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중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때는 전화도 잘 없을 때야.

들이만 데려다놓고 "좋은 만남이 되세요."이려고 차 한잔 마시고 난 나와.

(만나는 장소는) 평택 관광호텔... 주로 그런데 다방이지 뭐, 그때들은.

그리고 국민은행 옆에 가원가든이 있었어. 지금 거기 극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건물 밖에서는 육각형.

(성사)된거만 20쌍. 안된거까지 하면 아마 100번도 넘게 했을 거야. 지금 한사람은 3년 만에 결혼시켰어. 열 한사람 보여줬어. 아가씨를. 그리고 5년 만에 결혼시키고. 아니 근데 나한테 말기면 내가 계속 후보를 발굴해 갖고 해주겠다고 한거야.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딸도 시집보내야하는데 신랑감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그래, 이런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하다 보니까. 지금도 문자 또 들어왔어.

(첫 커플이) 개가 35살 됐나? 지금 저쪽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와서 살면서 몇 년 후부터는 계속했던거지. 근데 요즘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도 계속해요.

딱 한 커플 이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위에 살고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애들 도와준다 그런거 보다도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 커플들, 애기들도 많이 컸을 거아 니야.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선물을 좀 멋진 거를 사다가 놓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 불러다 모아서 고기도 구워서 좀 먹이고 "너희들 내가 맺어준거야" 그러면서. 그럼 굉장히 재밌을 거 같아요.

**봉사는 42세때, 부대 다닐때부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 추억이라기 보다 젊어서 봉사하러 다녔던거 그게 제일...

그래도 밥먹어서 배부른거 보다 그게 더 행복했던거 같아.

그래서 어찌다 살다보니까, 나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봉사 하는 데는 그래도 자식 먹고 사는 건 (일을) 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직장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기억나는건 의용소방대. 소방대하고 부채 만들어서 환경봉사 할 때 여기서부터 부산으로 해서 강릉으로 돌아왔어요. 5

천개 만들어서, 역전마다 다니면서 앞으로 환경을 푸르게 하고 살자 이러면서, 남산에도 (새벽)4시에 갔어요. 쓰레기 주으러, 4시에 가서 줍고, 아침 해장먹고 그러고 왔던거 같아요.

굉장히 즐거워요. 하여튼 사회생활 하는데 우등상은 못타도 개근상은 해야겠다. 그때 작은애가 3살이었거든요. 3살, 5살, 8살, 11살 남작 보리쌀을 외상으로 먹어도 지금 쌀밥보다 그때는 맛있었어요. 그 밥이. 굉장히 봉사하는데 즐겁더라고. 그렇게 살며 인생간거 같아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즐거운 거야. 나이 먹었다고 이제 봉사 안 써주잖아.

복지관 가면 담배꽂초 줍고 이런 건 써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는데 그래도 그때는 열정을 내서 다녔는데 여기저기 봉사하는데 다 써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평택시에 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입학했어. 그래서 2년을 다녔거든요. 전에는 나 들어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1년,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나 들어가니까 1학년, 2학년, 2년을 하더라고. 2년에 졸업을 하는거야. 650명이 있더라고. 1학년이 350명이고, 2학년이 300명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문예회관에서 입학식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부 복지관 가서 교육받고 한 시간은 강의듣고 한 시간은 노래듣고 졸업할 때 280명이 졸업을 했어. 어디서 사각모자랑 빌려왔는지 다 입고. 그런데 내가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어디에서 알겠어. 아, 평택시만해도 노인들이 많구나 그걸 알게 된거지.

봤어야지 애깃거리가 되는거지. 내가 살아가는데 괜히 고민하지 말고 애깃거리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발악한거 같아.

여기도 노인들이 몇명인지도 안가봤으면 모르는거잖아. 시에 가서 노인들이 몇명이나 돼요(하고) 물어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다 접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노인대학에 갔던거지.

65세부터이거든요. 1년에 두 번 씩, 춘천에 양수 발전소, 서산에 무주 발전소. 거기는 미리 예약해서 가야되는데 두군데를 갔다왔는데, 땅속으로 내려가서 아파트가 10층 정도는 내려갔대. 그 안에 내려가니까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 춘천에는 산꼭대기에 저수지를 만들어 봤어. 그래가지고 11시쯤 거기다가 물을 올린대요. 우리는 버스로 들어가서 또 아래로 내려간 거야. 발전기 만들어놓은데를. 봉사를 안했으면 그런데를 가보겠어요? 부대간 일들은 판문점에 이북에서 나와서 상담하는 데가 있잖아. 우리는 들어 가는대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된대. 반

대편으로 못 들어가. 연이 없으면 그런데 갈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보니까 특별한데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얘기도 듣게 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애깃거리지. 누가 나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거니와 마음속으로만. 그땐 젊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랬구나.

지금 젊은 사람 보면 굉장히 흐뭇해. 반갑고. 내가 청춘이 있었나 싶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거야. 지금도 '저기 가서 쓰레기 주워서 돈 벌어야돼' 이런거 보다도 그런(봉사와 공부) 애착이 있는 거야. 돈벌어야 되니까 못다닌거야.

**안정리에서 살 때,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 집들이 몇 채 없었어요.

다 걸어 다닌거지. 여기서 한 20분되죠. 여기 다 새로 생긴거지. 발전되고. 애들 어렸을 때는 **친정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하셔서 (애들을 봐주셨어요).** 피난 나올 때 같이 나왔지. 철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애들 밥은 쥐야되잖아. 여기 방이 두개야. 연탄 부엌하고 아버지 이쪽 방에 사시고, 우리는 요쪽방에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오면 추운데. 아버지는 내가 벌어서 연탄 사고 그러는게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두꺼비집을 달아놔 버려. 그럼 아랫목에 미지근하잖아요. 그랬다가 열어놓으면 아끼지 않는다

고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했어. 너무 추우니까 양쪽에 **부뚜막 열기가 있으니까 (부엌에서) 웅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었지. 방이 추우니까.**

예전에는 부엌에서 밥 먹고, 거기다가 상 차려서 먹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호박, 이런 거 심어가지고 뚜껑을 확 열면 금방금방 끓으니까 된장을 뚝배기에 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걸 거기다 앉혀 놓는 거야. 그럼 미지근하게 끓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낀다고.

또 아버지가 시골(고향)에 있을 때, 숨을 틀었어요. 그래서 서울 청계천 가서 사서 하나 들여 가지고 창고 하나에 숨틀을 만들어놔어. 그래서 아버지 숨틀어서 용돈 좀 버시라고.

이불 숨틀러 오고 그랬었어. 그래서 숨틀집이라고 소문이 있었지. 내가 드릴게 있어야지.

그러면 **당신은 아껴준다고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시잖아. 바닥에 앉아서 막 걸리도 잡숫고 쌀 아끼느라고 저녁을 안드셨대.**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쌀 아껴준다고 안드시는게 너무너무 맘 아프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나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렇게 밥을 드셔야지 안 드시냐고 내방에 들어가서 눈물뿐이 나오게 없지. 어디다 얘기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12년 살았어요.

동생네 집이 용인인데 거기 가서갔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전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너네 집 있을때가 행복했다.”고. 동생네 집에는 좀 형편이 나아서 막걸리 사놓고 반찬 잘 해놨어도, 여기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늘 장기 두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셨던거 같아. “나가 힘들지만 안았으면, 여기서 더 살았으면 싶더라”는 거야.

(우리가) 6남매예요. 제가 맏딸이었지. 내가 11년 모시고, 거기가서 1년 계시다 돌아가셨어. 친정엄마는 연탄가스도 여기 나와서, 신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옛날에는 부엌하고 방하고 바로 붙어 있었는데다가 시멘트 같은 걸로 안돼있어서 아무래도 흙이다 보니까 갈라진 틈 사이로 나와가지고...

어린애들 놓고 다니니까 걱정됐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밥은 안 굶고, 쌀만 대놓으면 돼. 떨어지지만 안게. 그럼 때 먹일거 아니야. 문도 허름해서 어떤 땐 열려있더라고. 어떻게 할 길은 없고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눈물나는거 뿐이야. 그래도 애네들은 내가 밥은 굶기지 말아야겠다 생각뿐이더라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하지만 버는 만큼에서 계획성있게 절약하면서 사는데 행복을 느껴야지. 만족이 없는거 같아.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닌거 같아. 그래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간 화합이 행복인거 같아요. 돈이나 불쑥 갖다놓으면 내가 필요한 거 사는거지 인간관계의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더 모실 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화목이 그래도 유대가 있을 때 서로 동료간에도 대화를 나누고, 그게 필요로 하다는걸 느꼈어요. 그때는 뭐 다 살기 바빠서. 그래도 인심이 후했던거 같아. 동태찌개를 먹어도 나눠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다 잘 먹으니까 나눠주지도 않고. 그땐 다 어려우니까 도움 줄 수도 없고 도움 받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지 않나 싶어요.

애들은 기억을 못하나봐.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으면 내가 대답하겠는데. 안 물어봐. 그래도 나로써는 너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먼저 하기 싫어. 뭐 호강시켜준게 없으니까. 근데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묻더라고. 그런데 이번 추석때 아빠사진 있냐고 그거하나 묻더라고. 그전에는 뭐 하러 (사진을) 날 줄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찾아다가 며칠 전에 갖다 줬어. 그래서 엄마, 아빠의 확실한 추억 거리를 만들어 줘야한다는거. 나는 그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애들과 추억거리

를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시대가 변했지만 그래야 한다는거.

(안정리에는) 미군들이 드나들던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낮에는 일

해주고 저녁에는 컵을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랑 많지, 그리고 색시들이랑.

뭐 흠이지. 거기서 한 1년, 2년 정도 일 했어요.

하여튼 아침에 여덟시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여기 시내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클럽이 많았지. **한집 걸러 한집이다 클럽이지.** 전부 와서 오락

하고 술먹고 노니까. 개네들 음악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이 많았지. 일반일들은 클럽에 못들어가. 미군하고 색시들, 패스

있는 사람. 드나드는 패스하고 보건증이런게 있어요. 개네들만 들어갔지 한국사람 못들어가.

여기가 최초에는 육군부대래. 송탄은 공군이고. 미군들이 저녁이면 다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한국사람들은 못들어가. 그기도가 있어가지고 다 조사해.

난 그 안에서 컵 닦았으니까. 봤지 그거는. 구경하러는 못들어가. 패스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개네들은 술을 그렇게 안먹어. 춤추고

노는거만 좋아하지. 많이 안먹어. 한잔 받아놓고 몇시간 놀다가. 노는데, 그게 스트레스해소 하는거 같아. 농사할때 힘드니까 노래하면서 했던거 같이, 저녁에 나와서 춤추고 놀면서 푸는거 같더라고.

그당시에도 군인들이 물건가지고 나오면

여자들이 뺏어가지고 그걸 팔고.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결혼한 가족들, PX가 있어요. 100원 가지고 사으면 200원, 500원 받았거든요. 그걸로

용돈 만들고 그랬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팔아서 장사하는구나' 부대에서 제재하는거야. 너네가 이만큼만

가지면 사겠다 해서 점점 줄여서 못사게 만들어. 요새는

수입품 사다가 여기서 팔아. 실제 PX에서 나오는건 별로 없어요. 그때 뭐가 있

었냐며는 양담배.

양담배 조사나와서 뺏어가고 그랬어. 그 물건을 파니까 어디 선물하느라고, 요새

그런거 사면 걸러. 전매청에서 조사나와서 꼼짝말으래. 양담배 조사하러 나왔

다더라고. 쌀통이고 김치통이고 다 뒤지더라고. 두보루가 나왔어. **한 가치에 열**

**마씩 벌금을 매기더라고.**

난 또 그 장사도 못했어. 위법이잖아. 그때 들 해서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였죠.

걸리면 벌금 물어야돼. 번다고 했는데 벌금 물면 어떻게. 그런데 우리 시누는

했죠. **그때 기억나는게 초이스 커피가 알갱**



K-6 캠프험프리스 1950년대

이가 커. 침을 묻혀서 껌질(뚜껑)을 까  
고 덜어내고 막흔들면 똑같이 다 (알갱  
이가) 서있어. 그래서 도로 붙이면 한  
병이 더 나오더라고.

그걸 막 흔드니까 뵈는지 안뵈는지 모르  
겠단니까. 초이스 커피가 맛있거든.

그때는 그래도 (미군부대) 들어가기 쉬  
웠어. 들어가서 8군패(미군 소속)만 되  
면 괜찮지.

월급이 많으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보너  
스가 나오잖아. 들어간 사람들은 2개월  
에 한 번씩이면 뭐야. 1년이면 6번에다  
가 월급이 12번에다가, 퇴직금이 한번이  
죠? 최고 많았어.

그래서 부대 다닌 사람이 다 돈벌었어.  
(월급도) 많지. 그래가지고 나 근무했던  
청소 사무실에는 미스매 와가지고 결혼  
해가지고 58세가 정년인데 그때까지 있  
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서울서도 다니고, 그 좋은 직장을 왜 나

가? 그때 아줌마들은 꽤 친했지. 재밌었  
던거 같아.

힘든 일이든지 뭐든지간에 자기가 긍정  
적이고 내가 이런일을 하는데 보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힘들고  
짜증스럽다는 생각하면 아무의미가 없  
는거야.

아침에 여섯시에 들어가면 오후 세시면  
끝나니까, 다른거 뭐 할 수도 있잖아.

다른데 직장은 다 다섯시 여섯시잖아.  
세시면 끝나니까, 그땐 시내버스가 부대  
에 들어갔어.

20번 버스가 그때 출퇴근 시켜준다고 들  
어갔다고. 근데 지금은 안들어가지. 그  
때 다녔어요.

부대 안에 한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  
까, 시내 버스가 부대 들어가서 돌면 한  
시간 걸려. 부대 버스는 공짜예요.

(지금)딸이 마흔여섯인데 결혼해서 싸이



K-6 캠퍼스 인근 동네 모습

버대 나와서 경희대 대학원 나와서 지금 강의해요.

앉아서 얘기를 해요. 엄마랑 있던 걸 난 기억을 못하는데 꼬박꼬박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 그랬었니? 그래, 미안했구나.”

**내가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 그건 엄마의 책임이지. 지네들의 책임은 아니잖아.**

“어머, 넌 어떻게 그런걸 시시콜콜 기억하니?” 그걸 얘기하는걸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딸이 매일 전화를 해. 개가 막내지. “엄마, 오늘 뭐하셨어요? 지금 뭐하세요?” 매일 전화하지. 12시 전에

아들 둘, 딸 둘에. 지금 증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결혼 일찍 해서 지금 증손자가 7살이에요.

잊그제 왔더라고. 지네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무나 미안스럽고. 그래서 내가 할일은 다르게 없어. 개네들 용돈주는거. 그래서 내 노후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내돈이다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애들한테 용돈을 줘야해. 그래야 좋은 할머니야. 그래서 그런게 미안스럽더라고. 만원씩, 추석 때 와서 2만원씩, 돈도 적절할 때 써야겠더라고.

지금 둘째 손자가 호서대학 입학했다가 군 제대해서 와가지고 지금 호주에 친구들이 있어서 나간대요. 그래서 3월 달에 나가는데 꾸든지 빌리든지해서 이런때는 써야겠다 싶어서 적지만 20만원 줬어. 그랬더니 공항에 가더니 전화가 왔어. “할머니 잘 다녀올게요”

야~ 이 돈의 위력이. 그래서 다르게 할일이 없더라고. 용돈주는거밖에. 크게 보태주지는 못하지만, 가족간에 어린 내손자한테 용돈주는게 잘하는거더라고. 그냥, 난 아직 의지 안하고 살아가는데 적절한 때는 써야겠더라고. 그러니 전화가 또 왔는데 군대갈 때도 “너 밥을 못 먹었는데”하면서 10만원 쥐어 보냈더니 저녁 다먹고 “할머니 저 군대생활 잘하고 있습니다”하고 전화가 왔어. 딱 두번 그랬어.

38살때 갑자기 눈을 떴는데 왼쪽 눈이 안보이더라고. 달력을 보니까. 그래서 안과를 쫓아 다녔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더니 “무슨 젊은 아

쭈마가 신경을 그렇게 써가지고, 신경이 죽었어요.”라는거야. 그래서 빨리 이나마라도 안경을 차이나게 쓰지 않으면 뜬 상태에서 멀어진다는거예요. 그래서 그때 38살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지. 그랬다가 지금 30년 됐으니까, 10년 전에 안과에 가서 수술하고는 잘 보여요. 그만큼 세월이 좋아진 거 같아요.

(내가)43년생인데, 2000년도에는 혈액암이 왔어요. 아침에 직장을 가는데 목에 혹처럼 종기가 솟 나오더라고. 그냥 뭐가 나왔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밤알만한데 커지지도 않으면서 느낌이 이상한거 같더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깐 큰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해야되겠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가 붓더라고

여기가 이만큼 부어서 몸까지 돌려야될 정도로. 평택서 두달동안 다니다가 2월 20일경에 발병했는데 5월 20일에 우리 딸에 결혼을 시켜야돼. 그런데 수술을 했다가 제가 살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미뤄왔어요. 미뤄가지고 아산병원에 예약만 해놓고 결혼날 이렇게 붓더라고. 부은 상태로 사진을 찍고...

5일 있다가 병원가서 검사를 하니깐 혈액암이래. 근데 머리 위로 올라왔으면 못고친대요. 혈액타고 다니는거라. 골수를 빼야한대. 그래서 척수에서 빼더라

고. 그리고 다행히 빨리 왔기 때문에 목까지만 있지 머리카진 안올라왔대요. 그러가지고 이걸 목으로 온거니까 수술을 하는게 아니야. 항암제를 맞아야돼. 그래서 항암제 6번에다가 방사선 30번을 맞았어요. 방사선을 받으니까, 그때 그래도 건강체질이라서. 그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안맞아 본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이기고 방사선을 받았는데, 받는 동안에 이 침샘이 다 말라. 입안으로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입)안으로... 암세포를 죽여야한대요. 겉으로 쏘는게 아니라. 입 안에다가 대롱 같은걸 넣어가지고 통속에 들어가서 췌고나오고 췌고나오고 목아래가 새까매지더라고. 목이 아주 가느다래졌어요. 다 말라붙어갔고. 지금도 많이 가늘잖아. 그래서 하고 나니까 치아가 다 빠졌어요. 지금 의치예요. 한개도 없어. 입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한 이든 뭐든 다 으스스 부서지더라고. 그냥 다 부서져버려. 그리고 침샘이 말라서 입맛도 없어진대.

그래도 살아야될거 아니냐. 물에 말아서 먹든 어떻게 먹든 먹어야 살지. 다른 거 먹어서 사는게 아니다.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치아가 한개도 없는거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좋은 세상이라고 살아야 된다고 생명이 연장이 돼갖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K-6 캠프프리스 인근 동네 모습

그 나이로 돌아가서, 내가 자본금이 있다고 그러면 양로원 같은걸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양로원 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멋진, 친절하고 그런 하나.

그걸 맨날 한다고 하면서도 혼자니까 할 수 없잖아. 돈 가져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러 다닐 때 “누가 땅만 내봐라” 내가 봉사 다니니까 자원봉사 할 사람들이 다 내가 구해서 하겠다하는데 땅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어. 일단 마음이 서야하는데, 마음이 그게 없더라구. 땅 있으면 돈 만들라고 그러지 내놓으면 그냥 내놓는걸 생각하는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세월이다 갔어요.

앞으로 세대에는 양로원이, 계속 필요로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들도 다 가야할거니까.

그 당시는 그때는 그거까지 생각할 수 없었지만 지금 굉장히 필요한(거지).

예전에는 집안에서 양로원 갔다고 하면 큰일, 손가락질 받았는데, 지금은 본인들도 다 가려고 생각해. 자녀들한테 민폐 안주고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봉사 불러주면 나가고, 남부노인회,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관 옆에 담배꽁초 줍는게 있어요. 갔는데 회사 아침에 출근해야하니까 출근했다가 거길 가려니 힘들더라구. 그래서 가끔 시간을 때 가고 늦어지면 못하고.

결혼 전 친구들은 지금 어디사는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 친구들은 만나요.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만난 친구들. 피난오면서 얘기 때 20살 이전 친구들은... 소래에서 살았거든요. 소래 옆에 군자라는데, 군자가 예전에 시화지구였어요. 소금 많이 나던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금 많이 나던데, 안산 정왕리, 거기지. 거기서 한 10년 살고 결혼을 했지. 피난을 거기로 나와가지고 10년 살고 결혼을 했어.

피난은 8살(에 나왔는데) 거기 소금이 엄청 낫았어. 지금은 군자가 없어지고, 소래 다리가 있어. 철길 다리가 바닷물 들어오고 하던 다리가, 지금도 있어. 지금은 돌아돌아서 길이 낫는데. 거기는 지금 공업단지되고 그랬더라고, 가봤는데.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캠프힘프리스공보실, 평

택사이버고향전시관, 평택문화원



[있었]고 [있]고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우리 세계가  
단절된 토막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게 하는 힘은  
이어짐-관계에 근거한다  
세상을 잇고 있는 것이 있음을  
만들어낸다

반복 있다—있다



內閣地圖





지도방\_전체모습

장성욱 | 지도 방,

Carpet, Polycarbonate Panel, UV Print,  
LED light, 2016

이 작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뀌어 온 지형적 변화 및 시간의 축적으로 새롭게 조성된 평택의 지형을 지도의 스펙트럼으로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사전에 평택에 거주하는 10세 아이들 100여명의 설문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로 평택의 드림 도시를 재미있게 나타내 보았다.

지도 방은 다양한 관람객들의 참여로 매번 다른 모양의 평택 모습이 표현된다.





반복 세션에서는 평택의 변화를 행정 지도를 겹쳐서 천정에 설치했다. 그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이 카펫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평택 지도다.

이 지도는 아이들이 이미지 말을 놓는 판으로 쓰인다.

- ★ 이미지 카드를 보고 내가 원하는 우리동네에 있어야 할 것들을 찾는다.
- ★ 선택한 이미지를 내가 사는 곳 혹은 살고 싶은 마을에 돌려 놓아 새로운 지도를 만든다.

★ 이미지 말판





노을방으로 사용된 학교 뒤편 창고건물

장성욱 | 노을 방

Full HD/Full-time/Video HD/5MIN/  
Video

평택의 상징, 노을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노을 방은 놀이 체험 공간으로 관람객들 각자가 경험하거나 느꼈던 노을을 직접 표현하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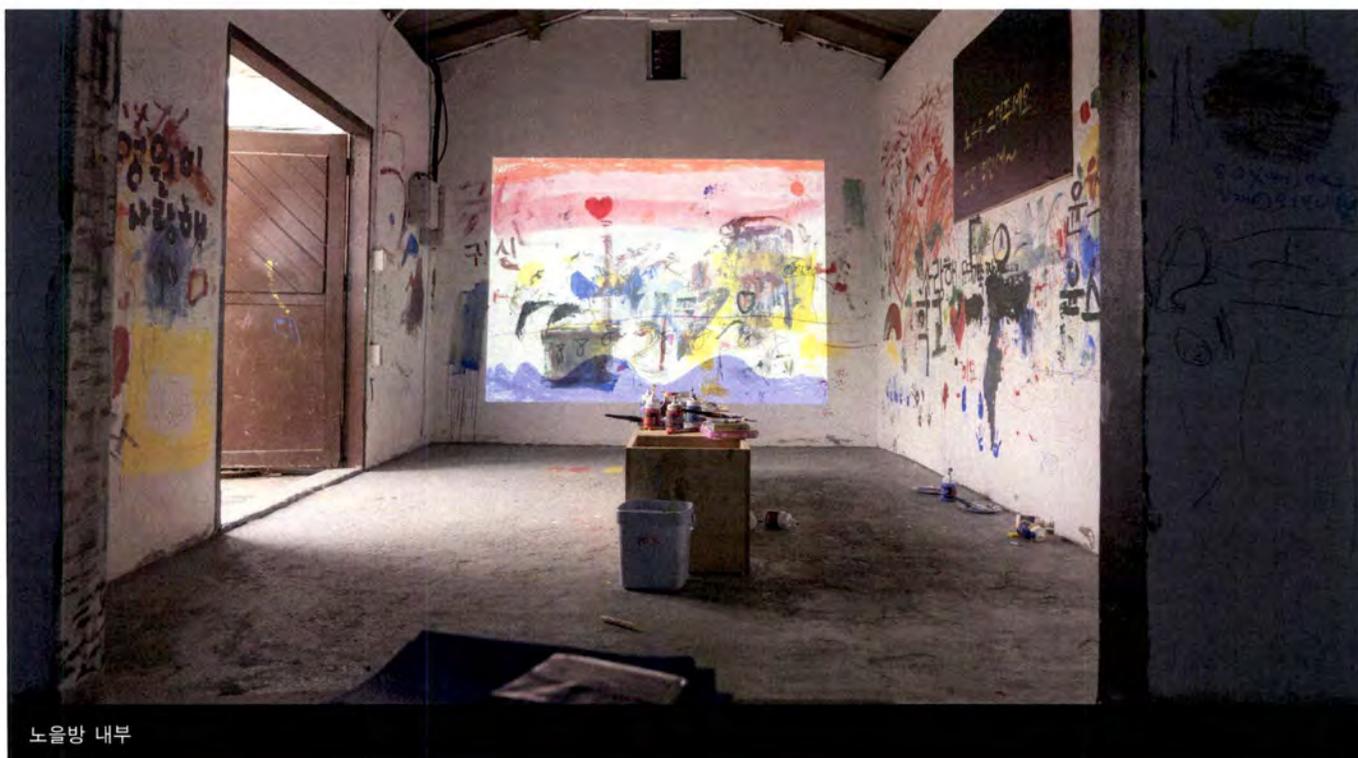
아이들이 그려준 평택의 노을이 벽면 한쪽에 조사 된다.

반대편 벽면에 관람객이 서게 되면 노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벽에는 자유롭게 노을을 그린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노을이 관람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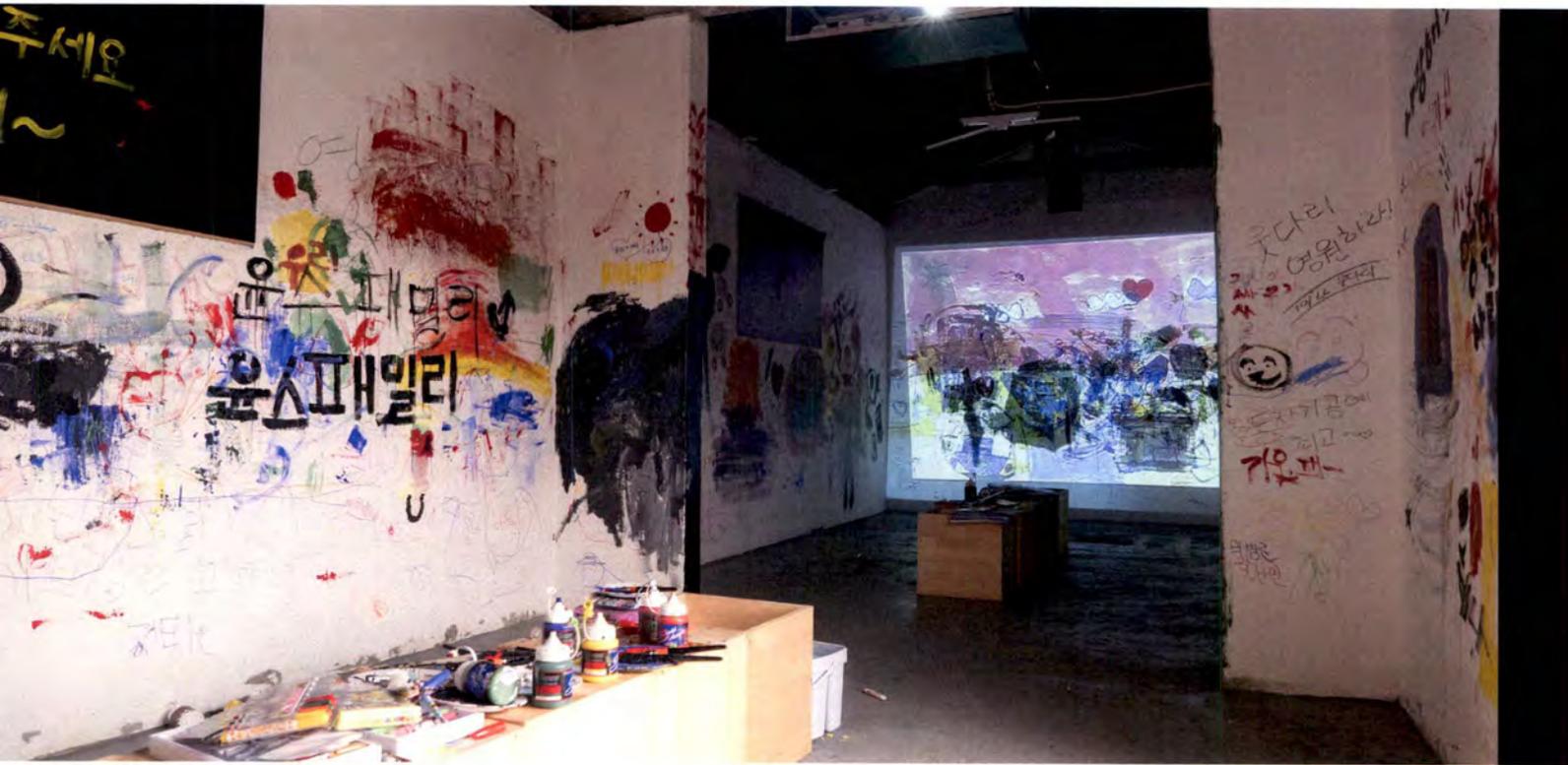
[참여 방법]

1. 공간에 준비된 재료를 선택한 후 벽면에 자유롭게 그린다.
2.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 또는 영상이 있는 공간에 색을 덧칠하는 게 가능하다.



노을방 내부





여 백

평택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공통된 감성이 평택을 이루고 있을까.

7월19일 평택문화원에서 오민영 국장님과 황수근, 최실비 두 분의 학예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에서 바라볼 때 평택을 있게 한 큰 요인은 무엇일까?  
세 가지 요인을 꼽게 되었습니다. 철도 및 도로교통의 발달, 아산만 방조제로 인한 지형적 변화, 농공업 용수 시설에 의한 삶의 방식 변화, 그리고 미군기지가 그것입니다.

김병직 작가와 이진영 큐레이터와 만나 평택문화원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름 습득한 평택 지식들을 풀어 가며, 한 숨 간간히 섞어가며 기획회의, 작품방향회의를 했습니다. 흥연 물이네!! 라는 말이 특! 터져 나왔고 누구도 아니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저런 말슴의 바다에서 끌어 올린 것이 '물'이었습니다.

아산만 방조제가 생긴 것도 그래서 어부의 삶에서 농부의 삶으로 생활방식이 변화된 것도, 물류단지로 교통발달을 초래한 이유도 미군기지의 이전도 물=바다를 끼고 삶의 터전이 만들어진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타원의변주 세션에서는 평택에 터전을 만들어 살면서 물로 인해 생활이 바뀐 사람들, 혹은 물로 인해 평택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 말하자면 터 무늬가 물로 인해 바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의근, 인원환 어르신은 아산만방조제가 생기기 이전, 해수면 어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고향이 여기냐고 묻는 저희들에게 사랑현에서 30대를 사니 쫓 고향이지... 라고 답하시는 신만철 어르신은 일제와 해방 이후와 6.25를 통과한 삶을 이야기 해주십니다. 더불어 산제이야기와 어업을 하셨던 형님이야기 상여소리이야기 등 마을살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광풍, 안의환 어르신은 각기 송탄과 안정리로 이주한 삶을 미군부대 경험을 토대

로 얘기해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미군기지로 이주민이 된 대추리 마을 이야기나, 안정리 속 여성들의 깊은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웃다리 문화촌에 전시할 자신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택---동심의 리듬 세션에서는 작가의 눈에서 본 평택을 기획했습니다.

하나의 방에 두 개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물의 에너지를 시각화 시킨 《물, 動, Pause》와 평택을 영상을 소리 위주로 담아낸 《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물, 動, Pause》는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해 물 응집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지된 시간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반면 《여행》은 시원한 들관과 물을 오버랩하면서 보여줍니다. 푹!푹!푹! 물방울이 떨어지는 청아한 소리로 시작하여 평택농악소리, 굴착기계 작동소음, 비행기 이륙 소음이 우퍼스피커를 통해 관객을 압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의 그 물방울 소리가 에코를 남기며 길게 퍼져나갈 때 째 정작 영상은 소리를 담아내는 보조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소리 반사를 제대로 받아 내기에 부족한 공간 때문에 밤새 스피커를 옮겨가며 소리를 잡다가 새벽에 스피커를 바꿔가며 세팅을 마쳤습니다. 한편의 압축된 평택의 역사였습니다. 평택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영상 앞 의자에 앉아 보고 또 보고...

반복---있다-있다 세션은 지도방과 노을방으로 관객참여형태로 기획하였습니다. 웃다리문화촌의 박물관 자리와 창고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했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주요 방문객이 아이들이라는 것에서 출발했고, 아이들이 주요 관람객이라 생각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지도방과 노을방은 10세 전후의 평택아이들이 작성해준 설문과 그림을 기본 뼈대로 구성하게 됩니다.

지도방은 평택의 행정지도를 통해 변화된 평택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래된 지도부터 현재지도까지 레이어드하여 천정에 설치했습니다. 그 연장으로 바닥에 현재 평택 행정 지도를 카펫 위에 그려 놓았습니다. 카펫 지도는 아이들이 응답해준 우리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진 말이 놓일 판으로 쓰입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미래를 향한 지도가 되는 셈입니다. 숭숭 긴털카펫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잉크가 잘 안 입혀져 속상했지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노을방은 평택의 자랑 노을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그려준 내가 본 평택의 노을

이 벽면 한쪽에 연달아 이미지가 바뀝니다. 반대편 벽면에 관람객이 서있으면 노을 속으로 들어가는 CCTV를 응용한 단순한 체험공간입니다. 나머지 벽에 자유롭게 노을을 그리게 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노을을 예상했으나 낙서벽이 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전시하기로 했던 화성에서의 전시가 무산 되면서 흘러버린 시간과 평택에서의 전시공간을 찾아다니다 흘러버린 시간으로 너무 늦게 작업이 시작된 탓에 더 많은 것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의미를 갖고 전시만을 위한 전시장 공간이 아닌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문 전시공간에서 멋지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삶에 속한(했던) 공간에서 전시를 여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적절한 전시장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폐교 공간을 선택한 것은 개발 논리에 의해 사라지는 소중한 지역의 장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웃다리문화촌이 주는 오래된 멋의 깊숙한 매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을 읽어내는 능력이 미흡해 많은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고 그동안 쌓아온 연구와 지역연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평택문화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 백





택, 모모로부터 온  
2016. 10.20 (Thu)~30 (Sun)  
개막식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6시  
장소: 서울 국제컨벤션센터  
www.kcc.or.kr







##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

기획	민병은
큐레이터	이진영
참여작가	김병직
테크니션	장성욱
사진·영상 촬영	장성욱
전시 디자인	정상목
설치	박상도(에이원 플랜)
자료 디자인	홍원태(머스터드)
인쇄	영광프로세스
지역자료조사 및 인터뷰	평택문화원 황수근, 최실비
공간협력 및 어린이체험자료수집	웃다리문화촌 이수정, 이승진
도슨트	평택시관광문화해설사

**발행일** | 2016년 12월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 엄상덕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평택문화원

**기획** | 문화집합 36.5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평택시, 평택시의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 031-239-1020

**팩스** | 031-239-3785

.....  
본 자료집은 2016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평택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평택시, 평택시의회

기획 문화집합36.5